

2008년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기념

신실한 사람들,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제2회 순교자기념주일 예배자료집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표지 사진 설명 (앞면)

양주삼 목사 · 전효배 목사 · 김유순 목사 · 송정근 목사
권명주 장로 · 김익용 장로 · 조민형 장로 · 한사연 목사

표지 사진 설명 (뒷면)

유관순기념관 · 양화진 묘역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 제암리기념관

차 례

순교자기념주일 목회서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삽시다 - 신경하 감독회장	4
----------------------------	---

순교자기념주일 설교문

❶ 순교자 최인규 권사의 신앙을 본받자! - 고문석 목사(천곡교회)	6
❷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 편집부	12

순교자기념주일 특강

❶ 순교 신앙과 한국 교회 - 서영석 교수(협성대학교)	18
❷ 한서 남궁억 선생의 신앙과 삶으로 본 순교자의 사상과 정신 - 현재호 목사(한서교회)	30

순교자기념주일 자료

❶ 감리교회 역사유적 지도(서울)	38
❷ 감리교회 역사유적 지도(전국)	39
❸ 전국 순교 및 유적지, 박물관, 역사자료실 안내	40

감리교회 순교, 수난자 및 위인전 43

아펜젤러 하디 권명주 권원호 김구 김영학 김유순
김익용 손정도 송정근 양주삼 전효배 조민형 한사연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삼시다¹ 신경하 감독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 넷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가 순교자의 숭고한 신앙을 깨닫고 기리기 위한 순교자기념주일입니다. 5,913교회 모두가 이 날을 경건하게 지켜 순교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순교자의 거룩한 피를 통해 세워졌고, 성장해 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하신 순교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순교자들의 선택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욱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의 피는 믿음의 씨앗이요, 평화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수많은 순교, 순직, 순국의 사건을 통해 온전히 신앙과 민족을 지켜온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수난자들의 피와 눈물과 값없는 희생이 오늘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역사 앞에서 자랑스러



운 것은 위대한 선열들의 핏값 덕분이며, 우리는 이를 계승하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입니다.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본부 특별위원회로 역사보존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264단 제163조 5항). 이 위원회는 감리교회의 역사자료 발굴과 보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순교, 순직, 수난, 순국자들에 대한 연구와 기념사업을 통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믿음의 토양을 한결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순교자기념주일을 통해 156만 감리교인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순교자 최인규 권사의 신앙을 본받자!

고문석 목사(천곡교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24).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작년(2007)부터 순교자기념주일을 제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기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순교자들의 희생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순교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 최인규 권사의 신앙을 본받아 세상과 타협하는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신앙의 순수성과 절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고 최인규 권사는 누구인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는 천곡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창씨개명, 동방요배(황성요배)를 거부하다 순교 순국한 고 최인규 권

사를 기념하여 건축한 기념예배당입니다.

감리회 평신도 사역자로 천곡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한 고 최인규 권사는 강원도 삼척군 북삼면 송정리(현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741번지에서 1881년 11월 5일(음) 최돈일 씨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성장하였고, 18세에 부인 홍은선 씨와 결혼하여 평범한 농부로서 고향에 정착하여 생활하였습니다.

40세가 되던 1921년 북평감리교회(현 북평제일감리교회)의 김기정 목사에 의해 전도를 받아 복음을 접하였고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중 낙심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1924년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46세가 되던 1925년 2월 15일에 학습을, 그 해 12월 7일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철저한 신앙생활로 금주, 금연은 물론 대대로 물려오며 섬기던 우상과 제기들을 깨뜨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최인규는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32년에 권사로 임명되어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2. 순교자의 시작 - 변화(회개와 새로운 삶)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자라는 말을 들으면 주눅부터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들 모두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란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부인(홍은선 씨)이 병에 걸려 차도도 없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최인규는 부인이 일찍 세상을 뜨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7년(1905) 만에 낳은 딸이 혼기에 다다랐으나 아버지인 최인규는 딸의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밖에서만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주선하여 시집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들어와도 딸조차 없자 최인규의 생활은 더욱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날이면 주막을 자기 집같이 드나들며 오가는 사람들과 술 마시며 시장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 중에는 측은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받던 최인규는 45세(1924)가 되던 해에 다시 북평교회에 출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북평교회의 담임목사인 김기정 목사는 최인규에게 늘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에서 참다운 인생을 찾아주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최인규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김 목사가 권하는 종교서적에서였습니다. 여러 서적을 읽는 중에 서울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가 발행한 <가명잡지>라는 월간지는 최인규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인규는 김기정 목사의 지도와 김 목사가 권해 준 종교서적을 통해 지나온 날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동안의 잘못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믿기 전에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담뱃대를 꺾어버렸으며, 큰집 조카가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제사상 밑에 누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 대대로 물려오며 섬기던 성주 단지와 제사 지낼 때 쓰는 각종 기물들을 우상으로 여긴 후 불살라버렸습니다.

최인규는 예수를 믿은 후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모습은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순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힌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3. 순교자 可 or 不可 ? - 주의 일에 대한 관심과 헌신

고 최인규 권사가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천곡교회 예배를 인도하였던 것은 주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북평교회에 출석하던 속장 권화선은 주일날이면 20여 리 떨어진 북평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는 천곡동 기도처에 모여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린 후 성경을 공부하며 계속 전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이는 수가 많아 기도처를 확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돕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다가 북평교회의 최인규 권사를 만나 이야기하였더니 그는 동감하여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재목을 운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32년에 예배당을 세우고 다음해에 봉헌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논, 밭 전체를 팔아 천곡리에 논 530평, 밭 1,369평을 마련하여 이주하였고, 1935년에 자신의 소유인 논과 밭 전부를 천곡 감리교회에 헌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뒤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곁에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편하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저 주일예배 한번 드리면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다른 모임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과 주님의 사업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순교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의 일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의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심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우리의 관심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4. 순교자의 마음 -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함

최인규 권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일제에 의해 강요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역과 창씨개명도 반대했고, 이에 호응하여 성도들도 일제의 명령에 불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인규 권사는 1940년 5월에 불경죄로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습니다. 취조 형사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된 의무로서 국가적인 의식을 존중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회유도 하고 때론 가혹한 고문도 가했습니다. 그러나 최 권사는 경찰서에서도 단호했습니다. “나로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신사는 일본민족의 종교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한 국가행사일 수 없다”는 강경한 답변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최인규 권사가 일본 경찰의 가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아니하자 어디 한번 창피를 당해 보라고 최인규 권사에게 인분통을 어깨에 지게 하고 온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하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내가 신사참배를 거역한 최인규올시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 권사요”라고 외치며 기쁘게 끌려 다녔습니다.

그 후 그는 함흥재판소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모진 고문과 옥고로 인해 1942년 12월 6일 14시 향년 63세의 일기로 옥중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먹고사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

서 주님을 위해 살면 경제적 손해를 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권력이 든든한 힘이 되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 권력을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명예가 사람들로부터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데 반하여,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면 명예를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겪는 손해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었기에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최인규 권사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여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순교자기념주일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 최인규 권사의 신앙을 본받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순교자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 편집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어느 날 큐티 자료를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속옷 하나만 입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가 믿음으로 회개하였기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에 기초를 하려고 하지만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우선되지만 마음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예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고 따라야 할 바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생명과 같은 모든 것들은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남을 것이며, 단지 육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재미와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 것들은 지푸라기같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계 20:15)이라고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신앙의 가치가 시험받기 위해 불로 태움이 있겠고 거기에 남은 것이 상급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

름다운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스테반이었습니다. 그는 설교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행 7장).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십자가나 순교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물질적·육체적인 건강,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를 향하여 그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그 준비한 것(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눅 12:15~21). 재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마 19:23).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가치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중생하였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 순교의 영성은 희생과 섬김의 도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장 명확한 선교방법은 ‘한 알의 밀’이 되라는 것입니다(고전 5:7). 우리는 이 밀의 상징 속에서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썩혀 줄기와 잎을 나게 하며,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은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열매를 생산하듯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생명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렇게 행합니다. 영적 생명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질문하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몸은 사망의 몸이요, 곤고한 삶(롬 7:24)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자연적 가치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걱정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눅 12:25~26). 주님은 인간의 영적 가치에 더 큰 관

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자가 이 세상을 참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마 4:4). 사도들 역시 우리 삶의 기본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네 영혼이 잘 됨같이”를 중요한 가치로 보았으며 이와 더불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였습니다(요삼 1:2). 이러한 순교의 영성은 주님의 영광과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희생과 섬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마 10:39).

가장 철저한 순교와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서기훈 목사님은 1914년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후 고저교회, 김화교회, 구세병원 원목, 해방 후에는 철원 장흥리교회에서 시무하였습니다. 1940년에는 일제의 박해로 옥고를 치렀으며, 1950년 11월 공산 패잔병과 교회청년과의 싸움으로 공산군 9명이 죽은 사건으로 인해 문초를 받다가 1951년 1월 8일 그 청년들의 이름을 숨기고 공산군에게 총살당해 순교하였습니다. 일시 석방되었던 목사님을 문안했던 권오창 속장에게 “죽을 때를 당해서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死於當死 非當死 生而求生 非是生)란 유시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살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믿음을 지킨 목사님의 삶이야말로 추앙받을 아름다운 순교의 영성입니다.



2. 순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시대의 지평을 바로 볼 줄 아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엡 1:17~19). 진리를 깨닫고, 친절한 사랑과 공평한 정의를 배우고 나눌 때에 이러한 영안은 열리게 됩니다(엡 4:13~15). 여러 가지 수단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줄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은 열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 지혜나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일치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되어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은총의 수단으로서 기도, 성경연구, 금식, 성만찬,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메소디스트(Methodist)란 그 이름처럼 믿음의 훈련을 통해 철저한 자기훈련을 통해 이상적인 사랑과 현실의 사랑의 차이를 좁혀 나감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고 순교의 영성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성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 할 때에 얻을 수 있으며, 그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3. 순교의 영성은 진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단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현재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성례전입니다(롬

5:1~2).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은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업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적으로 우리의 무지와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로주의 사상은 참으로 무지한 생각이요 비성서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15:16).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여 구원을 받으리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이제까지 자신을 위한 목표와 수단은 다 헛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긍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고전 10:31). 바로



신앙의 원리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결실을 맺는 것이 진정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는 한국 감리교회를 위해 철저하게 헌신하였고, 1884년 드류대를 졸업할 즈음에 엘라 닷지와 결혼한 후 학교선교를 위해 스크랜턴 의

사(의료선교사)와 함께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초기 학교사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배재 · 이화 · 감리회 신학반 등을 설립하고, 성서위원회와 감리교 출판사에서 협력사업을 하였고, 한국 청년운동과 더불어 YMCA 및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902년 6월, 성서번역자회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가다가 군산 근처 어청도 바다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던 중 비서와 여학생을 구하면서 그는 마침내 순직하였습니다. 한국 선교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섬긴 그의 삶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순교자기념주일을 지키며 그들의 고난과 신실함을 기억합시다. 그리

고 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은 순교의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을 불러 봅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순교 신앙과 한국 교회¹ 서영석 교수(협성대학교)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초대교회 신학자 터툴리안(Tertullian)의 말처럼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다. 그 피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피요, 그다음으로는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다. 이 피의 역사가 기독교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의 기독교를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신 이래로 그분을 고백한 성도들이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며 그 결과 순교하였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과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 발전하였다. 순교란 진리로 고백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증언하며 살다가 그로 인해 핍박을 당하던 중 기꺼이 진리를 따라 죽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순교는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신앙 행위였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순교자의 희생이 따랐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민족의 수난기에 수많은 박해의 역사로 이어져 왔다. 구한말 개신교 선교 초기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 겪었던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고, 이어 우리나라를 강점하여 식민 통치하였던 일제의 침략과 지배로 인한 수난과 박해, 그리고 해방 후 기독교를 적대시하였던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박해였다. 그리하여 한말과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직후 종교적 신념과 민족적 저항의식이 투철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한국역사 가운데 기독교인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3·1독립운동 희생자, 만주지역 등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희생자, 신사참배에 거부 항쟁하다가 희생된 자, 한국(6·25)전란 때의 희생자 등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희생자 중에는 순교자, 순국자, 순교, 순국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 때문에 희생을 당한 수난자들이 다 포함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희생자들이다. 해방 직후에는 북한지역에 수립된 ‘반(反) 기독교’ 공산주의 정부세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대거 나왔고 6·25전쟁 중에는 미처 정확한 명단조차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 이는 한국 기독교가 초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정신 때문에 순교 내지는 수난받은 희생자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순교 및 수난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광된 것이지만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순교는 평범한 신앙인에게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무거운 주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은 분명하다. 어찌 보면 현대 신앙인들에게 순교는 다원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주제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독교의 제자도에 대한 핵심적 가치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결국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본받는 것이라면 제자들이 치러야 할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삶의 포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적 상황에서의 ‘순교자의 정신’ 일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사는 것이 순교신앙이다. 사도 바울도 친히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신앙고백을 하였다. 그 순교 신앙정신이 바울이

사명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드리게 한 원동력이었다.

주님께서도 참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죽음)를 지고 좇으라고 명하셨다. 오늘날 성서에 나타난 바울이나 스테반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질문하게 된다.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순국, 순교자인 구연영과 최인규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순교정신을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자세를 점검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구연영은 교회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인물이다. 그는 민족의 위기상황 가운데 자신이 몸으로 부딪치며 애국하며 예수의 정신으로 살았고, 은혜 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고, 조국의

안위를 위해 구국운동을 하다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 한국 감리교회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인물이다.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소망을 잃지 않은 진정한 신앙인이었다.

구춘경이라고도 불렸던 구연영은 1865년 6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나 엄격한 유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18세 이전에 변씨와 결혼하여 네 아들 정서(1883생), 성서(1894생), 완서(1898생), 종서(1902생)를 두었다. 1894년 갑오농민 혁명운동(동학운동)과 그에 이은 청일전쟁의 결과 민중은 말할 수 없는 수탈을 당해 정부와 일본에 대해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고, 게다가 1895년 11월 단발령

이 공포되어 강제로 상투를 자르게 했으니 유생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의병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의병은 이천이 중심 되어 제천의 유인석 의병과 함께 중부지역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구연영도 이천에서 김하락, 김태원, 조성학, 신윙희 등과 함께 양근과 지평에서 군사 300명을 모아 이천의병대의 중군장으로 활약하였다. 의병운동으로 일본군과 1896년 1월 첫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시작하여 여러 지역에 다니며 일본군과 교전하였지만 계속 밀리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보급물자, 병력, 무기 등의 열세로 영남지방까지 다니며 전투 계속하였지만 세 불리를 절감한 구연영은 무력투쟁으로 항일민족운동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1896년 5월 자기 부하들(30여 명)과 함께 고향인 광주로 귀향하였다. 구연영은 결국 무력항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국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6개월 여 만에 해산하고 의병운동을 포기하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구연영은 1897년 2월 서울 상동교회의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가 자진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당시 상동교회는 민중이 모이는 남대문시장 터에 세워진 교회였고, 민중 사랑을 실천하는 스크랜턴과 전덕기 등 애국지사들이 모여 독립을 논의하고 나라 살리는 운동을 하고는 교회였다. 결국 구연영은 독립운동의 꿈을 기독교에서 찾았던 것이다. 의병조직과 투쟁도 한계에 부딪치고, 조선정부의 무능함과 한계를 알았고, 동학혁명도 좌절된 상황하에 선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서양 선교사의 힘, 즉 치외법권을 인정받는 교회의 힘이 당시에 있었다.

구연영은 상동교회에서 전덕기와 함께 교회 청년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다른 민족운동가와 교류하여 새로운 민족의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기독교적 민주정신과 평등사상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연영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예수 믿고 완전 새사람이 되어 전도인으로 바뀌었다. 세례를 받고(1899. 3) 선교부에 소속된 매서인이 되어 덕뜰에 정착해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후 노곡리 집으로 내려

가 자기 집을 예배처로 정하고 집 앞에 십자가를 달아 세워놓고 예배드리면서 미신타파와 도박 근절에 힘을 썼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상인들, 종들에게도 존칭을 쓰는 등 당시 양반들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파격적인 일을 하였다. 물론 이것들은 기독교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구연영은 이 일로 인해 집안에서 쫓겨났다.

이후 전도인으로서 구연영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과거 의병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들도 전도하여 기독교인이 되게 하였고, 귀신들린 여인도 기도로 회복시켰고, 1902년에는 1년 동안 1,500마일 여행, 성경만 600권을 팔았고, 그 외에도 상당한 분량의 교리서와 전도 문서를 팔았다. 그의 전도활동으로 이천·광주지역, 여주·장호원지역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곳곳에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1902년 구연영은 권사 직분을 받았고, 기도회 인도 등 지역교회를 관리하는 직분을 맡아 일했다. 신학회 교육을 통해 목회 자격을 갖춘 그가 1905년 정식 전도사로 임명되어 이천읍교회를 비롯한 광주, 장호원, 여주, 음죽, 용인, 안성에 이르는 지역교회를 순회하며 돌봤다.

이 지역은 그가 6년 전 을미의병을 일으킬 때 의병장으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녔던 지역이었다. 이젠 그 지역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칼 대신 성경을 들고, 피의 복수 대신 십자가의 구원을 외치며 순회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구연영이 완전히 민족운동을 버리고 복음 전도자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전도자였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민중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계몽운동이 시급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구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독교 복음과 함께 민족의 현실을 계몽하는 강연을 계속해 나갔다. 특히 1904년 일제의 친일단체인 일진회의 정채폭로가 구연영의 단골 강연 주제였다. 일진회가 추진하는 일제의 조선침략 정책을 폭로, 규탄하며, 경제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도 교회 조직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 아들 정서와 함께 ‘구국회’를 조직하여 민중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계기로 정미7조약 후

고종 황제 퇴위와 군대 해산 등으로 인해 의병의 항거가 시작되었고 일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1907년 8월에 대표적인 집회가 이천에서 열렸는데 ‘예수교인대회’였다. 약 2,000명의 인원이 모였다. 구연영이 의병운동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일제에 대한 규탄 강연과 영향력 때문에 일제는 구연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제거 계획을 세운다. “구연영만 없으면 기독교인이 없어질 것ियो, 배일자도 근절될 것이다”란 말이 돌아다닐 정도였다.

이때 그의 전도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받은 한 일본인이 그를 찾아와 빨리 피신할 것을 알려주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라 없는 백성의 욕된 몸이 되어 벌레처럼 살아간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하며 피하지 않고 계속 전도활동을 하였다.

결국 예수교인대회를 마치고 며칠 후 일본군이 구연영의 집을 급습하여 구연영과 그의 아들 정서를 끌고 갔다. 구연영 부자는 지독한 고문과 회유, 협박을 받았는데 끝까지 저항하여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꺾일” 정도였다. 결국 이들은 1907년 8월 24일(음력 7월 16일) 오후 1시경 이천 장터 미루나무에 묶인 채 눈감고 기도하던 중 총탄을 맞고 순교하였다.

구연영의 신앙정신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나라 사랑정신이었다. 의병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벌인 일은 물론, 예수 믿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구국활동을 하였고 상동엿윳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고질적인 계급의식 타파(상하 신분 철폐), 직업 차별의 철폐, 혼례·상례 허례 폐지운동, 국채보상운동, 금주·단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이천읍교회에서 교인들을 모아 “망국의 통곡의 기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하였다.

그리고 그의 나라 사랑정신은 백철불굴의 순교정신으로 이어진다. 순교 당시 일본 경찰이 잡으러 올 때 피신하라고 미리 알려주었지만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한 신앙정신을 볼 수 있다. 경찰에 끌려가 악형을 가하며 참지 못할 고문을 가

할 때,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일제가 함께 활동한 동지를 대라고 추궁할 때 “일진회 회원 외에는 이천만 동포가 다 동지이다”라고 구연영은 대답하면서 결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고문이 자행되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고, 변질치 않았다. 일본 경찰은 구연영을 살려두면 큰일난다고 생각하여 총을 쏘아 죽이게 된다. 이처럼 구연영 부자는 신앙으로 순교하였다. 조국을 위해 순교하였다. 올곧은 신앙, 체험적인 신앙인, 참 전도자, 목회자 구연영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간직하며 하늘나라로 가셨다.



**최인규 권사의
활동과 순교**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1936년 8월 미나미 총독이 부임하면서 조선통치 수단과 조선민족말살 정책으로 신사참배를 본격적으로 강요하였다. 초기에는 기독교계 학교에 강요하였고,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어 1938년부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까지 강요하였다. 결국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각 교단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1938년 12월 12일에는 전 조선기독교 대표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이세신궁을 참배케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신사참배한 것은 아니다. 교단 총회와 지도자들은 강압에 굴복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박해를 받았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한국인 목회자와 신도들에 의해 계속 추진되었고 이들은 소속노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받기도 하였다. 주기철, 한상용, 이기선, 채정민 목사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감리교회도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있었다. 연회에서 휴직하기도 하며, 제명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기도 했다. 33인 중 한 분인 신석구 목사는 천안교회에서 반대 투쟁하다 옥고를 치르셨고, 이진구 목사는 원산지방 고성교회에서

반대 투쟁하다가 투옥되었으며, 이영한 목사는 해주형무소에서 순교하기도 하였다. 1940년 6월에는 감리교신학교 내에 신사참배 반대와 일제의 정책을 반대하는 전단이 뿌려진 사건으로 신학교는 무기 휴교를 당하였으며 급기야는 폐교당하고 말았다.

여기서는 이진구 목사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옥중에서 순교한 최인규 권사의 활동과 수난을 살펴보려 한다.

최인규 권사는 1881년 11월 15일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에서 출생하였다. 최 권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나 1921년부터 예수를 믿게 된 후 방탕한 생활을 끊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를 하였고, 온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믿는 바를 이웃에 증거하기를 기뻐하였다. 강릉지역 삼척구역 북평교회에 출석한 최인규는 그 신앙의 순수함과 열심이 목회자와 신도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인정받아 속장이 되었으며 주일학교 교사일에도 충성하였다. 최인규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 유사직도 받았고 주일학교 교장일도 맡았다. 최인규 속장은 삼척구역의 천거로 권사직까지 받게 되었다. 당시 권사직은 본처사역자로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교회를 맡아 전도사일도 할 수 있으며 신학교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 최인규 권사는 천국교회 개척에 발벗고나서서 열심히 전도하며 예배를 인도하였고 자신의 논 539평(당시 시가 450원)과 밭 1,369평(당시 시가 600원)을 교회대지로 헌납하였다. 교회 건축을 위해 밤낮으로 일해 결국 1932년 초가 8칸의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고 1933년에는 봉헌예식을 거행하였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최인규는 정춘수 감독이 이끄는 ‘혁신교단’이 ‘국민정신 총동원 감리교연맹’을 결성하고 교인들에게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를 적극 권장하기 시작한 1940년 5월, 삼척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니 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맞서면서 일제로부터 수난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요지부동인 그를 혼내주거나 굴복시킬 목적으로 그를 천곡마을로 끌고 와서 ‘똥지게’를 지고 마을을 돌게 하였다. 경찰은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똥지게를 지는 그에게 외치게 하였다.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요!” 최인규는 주님

의 이름으로 능욕 받고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믿고 더욱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감격에 겨워 그 일을 했다. 그 때문에 더욱 심한 고문을 당했다. 보다 못해 삼척읍교회 차국성 권사가 안면이 있는 일본인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최인규는 정신병 경력이 있었던 자인데 병이 도진 것 같으니 풀어주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일본인 경찰서장은 정색을 하면서 그를 훈계하였다. “당신이 오히려 정신병자요. 당신도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라고 할 정도로 서장은 최인규의 신앙심에 내심 감복하고 있었다.

결국 최인규 권사는 천황을 모독했다는 ‘불경죄’로 기소되어 1941년 11월 함흥재판소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정치적 양심범들이 수용된 대전형무소로 옮겨졌다. 그곳에 가서도 그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그는 “신사참배를 하겠다”는 전향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죄수들은 대부분 따라하는 국민서사와 궁성요배, 일장기 경례까지도 거부하였다. 그 때문에 간수들에게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한 것은 부지기수였고 독방에 갇히기도 여러 번, 나중엔 ‘정신병자’로 몰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이런 일로 최인규는 대전형무소 안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결국 최인규 권사는 계속되는 고문으로 몸이 쇠약해져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병감으로 이전되어 치료받았으나 1942년 12월 16일 오후 2시 그가 사모하던 하늘나라로 떠났다. 최인규 권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옥중에서 순교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순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 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한국 교회가 첫 사랑의 순

수성과 첫 믿음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 나아가 극단적 이기주의, 물량주의와 배금주의 그리고 교파주의, 교권주의에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소

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과거 한국 기독교의 ‘열심’과 ‘좋은 이미지’가 사라져 가고 있다. 교인들은 더 이상의 희생과 헌신을 꺼려하며,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이제 교회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편의를 봐주는 형편이다.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도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만 하는 말만 전달되지, 십자가와 고난, 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에 관한 설교는 부담스러워한다. 결국 교회는 불신자들에게서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심지어 신자들조차 신뢰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순교신앙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한국 교회가 순교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다. 100년 전 이 민족의 수난 시기에 한국 감리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던 모습을 공부하며 교훈삼아야 한다. 한국 감리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교자들의 수난과 희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부흥 발전되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배들의 이러한 희생과 순교가 감리교회의 위대한 유산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교회, 썩어가고 냄새나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점점 편해지려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필수조건은 ‘고난’이다. 고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사는 온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새기는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를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현재 오늘의 주제로 보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7~18).

[참고문헌]

- 〈감리회보〉, 1952. 1. 1.
《기독교대백과사전》, 16권, 기독교문사, 1980~1985.
《기독교대한감리회요람 1960》, 기독교대한감리회총리원, 1961.
〈기독교대한감리회원로목사회보〉, 1987.
《민족의 증언》, 중앙일보사, 1972.
《상동교회백십일년사》, 상동교회역사출판위원회, 1999.
《서강교회100년사》, 성서연구사, 2002.
《수원종로교회사》, 예인기획, 2000.
《중앙교회107년사》, 용지인쇄사, 1998.
《6·25와 한국 감리교회 순교자》,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비평사, 1994.
강인철, 《한국기독교와 국가시민사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강화사》, 1976.
계광순, 〈돌아오지 않는 피랍인사들〉, 신동아, 1967. 5.
구본준, 《현대의 성서해석》, 구자옥남북40주기추모재단, 이진, 1990.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사》.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제7권, 제9권, 제16권, 제25권, 제30권, 제32권.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김재준, 《범용기》, 풀빛, 1983.
김재준, 〈적치하 수도의 수난 백일〉, 신동아, 1967. 5.
김춘배, 《한국기독교수난사화》, 성문학사, 1969.
김홍수, 《해방후 북한교회사》, 다산글방, 1992.
나동광,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의 생애》, 생명의말씀사, 1999.
대한민국정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1952.
류형기, 《은총의 팔십오년》, 한국기독교문화원, 1983.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북한민주통일운동사》, 대진문화사, 1990.
사와 마사히코, 《남북한기독교사론》, 민중사, 199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1,2》, 역사비평사, 1991.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1973.
안재정 외, 《원로목사 체험수기(1)》, 복지문화사, 1993.
역사위원회, 《한국감리교인물사전》, 신앙과지성사, 2002.
연백군지편찬위원회, 《연백군지》, 태광문화사, 1986.

윤여균·장동수·최태욱, <한국전쟁시 강화도 민간인학살 조사 보고서>, 2004.
 윤춘병, 《순교 순국자 최인규 권사의 삶과 신앙》,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2000.
 윤춘병, 《자교교회 100년사》, 신일문화사, 2001.
 윤춘병,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교육국, 1988.
 윤춘병, 《한국감리교수난백년사》,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2003.
 윤춘병, 《한국감리교회주일학교사화》,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1992.
 윤춘병, 《8·15이후 북한교회수난사》, 원로목사회, 1987.
 윌리엄 풀부쉬 편수, 《폭스의 순교사》, 한승용 역, 말씀보존학회, 2004.
 이덕주, 《선한사마리아인의 애오개 사랑, 아현교회110년사》, 신앙과 지성사, 2001.
 이덕주, 《신석구 연구》,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2000.
 이덕주, 《한국 감리교 여성교회의 역사》, 여성교회전국연합회, 1991.
 이덕주, 《종교교회사》, 종교교회, 2005.
 이북도민사(경기판)편집위원회, 《이북도민사(경기판)》, 기종족보사, 1994.
 이성삼, 《감리교와 신학대학사》, 한국교육도서출판사, 1977.
 이승만, “어떤 전쟁도 인간의 얼굴을 가질 수 없다”, <월간말>, 1994. 7.
 이영빈·김순환, 《통일과 기독교》, 고난함께, 1991.
 이진구, “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기독교세계>, 1968. 11. 10 (이후 연재)
 이태호·신경완, 《암록강변의 겨울》, 다섯수레, 1991.
 장병욱, 《6·25 공산 남침과 교회》, 한국교육공사, 1983.
 장흥교회역사이야기편찬위원회, 《가시밭에 백합화, 장흥감리교회 84주년 기념집》, 장흥교회, 2003.
 조동환, 《항공의 불꽃》, 보문각, 1957.
 중앙일보현대사연구소, 《미군 CIC정보 보고서》, 선인문화사, 199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KLO . TLO문서집》, 한림대학교출판부, 2000.
 <한빛>, 강화지방회, 1952.
 홍석창, 《매봉교회가 낳은 민족의 보배 유관순》, 한국감리교사학회, 2005.
 황해도지편찬위원회, 《황해도지》, 시사, 1982.

한서 남궁억 선생의 신앙과 삶으로 본 순교자의 사상과 정신

| 현재호 목사(홍천서 한서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시 하라 하시니라”(마태복음 9:35-38).

사상이란 자는 사실의 어머니다!

1907년 일제의 침략에 맞서 ‘대한협회’라는 민간 결사단체가 조직되고 남궁억 선생이 이 회의 총재로 선출되었다. 일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대한의 미래를 염려하며 통분하던 민족지도자들의 대표로 총재에 취임한 남궁억 선생은 대한협회보 창간사에 “사상이란 자는 사실의 어머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상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사상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하는 말로 대한협회의 창립목표를 분명하게 밝혔다.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조선의 앞날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하기만 하건만 정치는 부패하고 무능했으며,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으며 온갖 다툼과 시비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겨레의 앞날이 아득하기만 하던 때 일제는 온갖 술수와 교활한 방법으로 겨레의 새 날을 열어가려고 하는 겨레의 의지를 짓밟고 뿌리째 뽑고자 대한자강회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대한협회는 그렇게 강제해산한 대한자강회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설립한 민간 결사 단체였다. 개화기 민족지도자 오세창(吳世昌), 윤효정(尹孝定), 장지연(張志淵), 권동진(權東鎭), 유근(柳瑾), 정교(鄭喬), 이종일(李鍾一), 지석영(池錫永), 김중환(金重煥), 정봉시(鄭鳳時) 등이 대거 참여한 이 단체의 성격이 이렇듯 대한의 자주와 독립을 위한 것이 분명했기에 이 회의 총재로 협회보에 창간사를 쓴 남궁억 선생은 “2천만 겨레가 독립의 사상을 가지고 독립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것이 대한협회의 창립의지이자 목표였던 것이다.

대한협회는 이후 1910년 일제의 강제로 해산하기까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통하여 협회의 창립의지와 목표를 위하여 애썼지만 그 결과는 일제의 감시와 술책으로 인하여 그리 크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협회가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와 제휴를 하는 것처럼 매도되자 선생과 동지들은 과감하게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일진회를 규탄하였으며, 그결과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하는 아픔을 겪었다.

참으로 아쉽고 애석한 일이지만 이러한 개화기 민족지도자들의 사상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과 머리에 남아 마침내 1919년 3·1만세운동을 지피는 거름이 되었으니 개화기 민족지도자로 한서 남궁억 선생이 가졌던 자주주권 사상과, 그 사상에 능력을 더하고자 했던 신앙과 삶이 젊은이들에게 준 영향력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

종교교회에서 세례받고 대들보 신자가 되다

한서 남궁억 선생은 1910년 남감리회에 속한 종교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본처 전도사의 직함을 받은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로서 개화기 민족지도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기었다. 선생은 개화기 선각자로서 겨레의 자주와 주권을 회복하고 세워서 한다는 분명한 사상을 가졌던 분이다. 그리고 그 사상에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신 분이다. 그러한 이유로 일흔일곱 해를 사는 동안 여섯 차례나 구속되고 그때마다 견디기 힘든 모욕과 고문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겨레를 위한 자주와 주권회복이라는 사상을 굽히지 않으셨다.

일흔한 살의 나이로 구속 되던 당시 “조선은 무능하니 독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켜낼 힘이 없지 않느냐”는 검사의 취조에 대하여 “오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데 어찌 무능하다고 하느냐”고 하셨던 선생의 역사의식은 오늘



을 사는 우리의 나약하고 얽박한 개인주의와 찰나주의를 부끄럽게 한다. “하지만 대세가 이미 기울었으니 협조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어때냐”고 하는 회유가 이어지자 “내 나이 이미 칠십이 넘었는데 내 뜻을 굽힌다면 개가 옷을 일이니 어서 법대로 하시오”라고 하신 선생의 굳은 의지는 더더욱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편의주의에 물든 안일한 생각을 돌이켜 보게 한다.

남궁억 선생은 사돈인 윤치호의 전도로 감리교인이 되었지만 그 이전, 이미 1903년에 황성기독교청년회의 회원 겸 이사위원으로 개신교회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남궁억 선생이 언제부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이유로 세례를 받고 본처전도사의 직함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생의 생애를 남긴 김세환 선생의 책 《불굴의 열》과 모곡리 주민들과 선생의 제자들이 전해주는 증언에 의하면 선생은 분명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사신 분이었다.

사돈인 윤치호 선생은 남궁억 선생이 본처전도사의 직함으로 모곡리로 떠나가던 때 교회에서 가진 송별예배에서 처음 교회에 나오던 때 겨레의 비참한 운명에 낙심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했던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던 선생이 교회의 대들보가 되어 떠나간다고 하는 말로 선생의 신앙을 높이 샀다.

저 어린 학동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주자

그렇게 모곡리로 내려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설립하며 독립의 사상과 의지를 불태우던 선생은 1922년 9월 어느 날 늦은 밤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셨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어린 학동들의 천진한 모습이 눈에 어른거리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신 때문이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 마태복음 9:35~38의 말씀을 묵상하신 선생은 “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변치 않게 하시니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더 혹독한 왜정하에서일지라도 이를 육으로 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 응답으로 내쳐 한 편의 시를 쓰셨다. 저 어린 학

동들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 주자며 쓰신 찬송가 580장(통 371장) “일하러 가세”가 이 노래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 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목자 잃은 양처럼 기진하고 지친 이들을 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라 잃은 겨레의 암담한 내일을 위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자”고 하는 선생의 불타는 신앙과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다.

찬송가 580장, 이 노래를 지으시던 밤에 드리신 기도에 묻어나는 선생의 신앙과 삶은 모곡리에 내려와 일흔일곱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한 결같았다고 하는 것이 이곳 주민들과 제자들의 증언이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훈련시키셔서 동양의 낙원을 이루시고 세계평화를 위하여 들어 쓰실 터인데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전도하시던 선생의 신앙은 찬송가 580장뿐 아니라 선생이 지으신 노래 “주일학교가”와 “조선의 노래” 등 노랫말에 녹아 있다.

겨레의 자주와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며 권위라는 믿음으로 겨레의 새 날을 열어 가시던 남궁억 선생의 일생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다. 독립을

노래하고 독립의 깃발을 흔들면서도 비폭력 무저항의 정신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대한 믿을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고종 황제의 영어통역관으로 시작한 관직에서 정3품의 벼슬을 하면서 시민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시작한 민족운동은 최초의 일간지인 <황성신문>을 창간하고 초대 사장을 지내는 언론인으로 겨레의 위기를 일깨우는 데 앞장섰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이마저 길이 막히자 교육으로 독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교육자의 길을 걷는 데 앞장서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서예교본을 펴내는가 하면 여성교육을 위한 가정교육교과서를 펴내고 저 유명한 무궁화 수본을 고안하여 우리나라 지도에 팔도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태극기를 수놓도록 하는가 하면 100여 곡의 사상가를 지어 부르게 하고, 인물 중심과 사건 중심의 역사책 《조선이야기》와 《동사략》을 펴내어 일제의 감시를 피해 우리 역사에 흥미를 더하고 교훈을 담아 겨레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므로 불굴의 정신으로 겨레의 새 날을 열어가도록 한 것이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다.

독립협회 시절 성기에 불심지를 놓는 고문으로 성불구자가 되고, <황성신문> 사장으로 재임하는 중에는 일제의 침략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러일 비밀 협약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고문을 받았지만 남궁억 선생의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선생의 가슴은 분노와 실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종교교회에서 시작한 신앙생활은 선생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지금까지의 생활 무대였던 서울을 떠나 말동무 하나 없는 강원도 홍천 땅 사방이 산으로 들어 선 산골마을 모곡리로 향하면서도 새 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미리 마련한 사택에 도착 즉시 가족예배를 시작으로 모곡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면서 전개한 무궁화운동으로 인하여 일흔한 살의 노령에 다시 옥고를 치르는 수난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선생의 기대와 믿음은 한결 같았다고 한다.

선생의 무궁화운동은 꺾이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무궁화처럼 일제의 강

압과 압제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독립의 날을 열어가자는 운동이다. 오천년 우리의 역사가 무궁화처럼 그렇게 일어서고 그렇게 피워 낸 역사라는 자긍심과 자존감으로 시대의 수난과 고통을 이겨내자는 운동이었다. 선생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무궁화를 예찬하는 시”로 써서 남겼고 “무궁화 동산”이라는 노래로 남겼다.

무궁화 예찬시 (남궁 역)

금수강산 삼천리에 각색초목 번성하다. 춘하추동 우로상설(雨露霜雪)
 성장성숙(成熟) 차레로다. 초목 중에 각기자랑 여러 말로 지껄인다.
 복사오얏 변화해도 편시춘(片時春)이 네 아닌가.
 더군다나 벚지꽃은 산과 들에 변화해도 열흘 안에 다 지고서 열매조차 희소하다.
 울밑 황국 자랑소리 서리 속에 꽃핀다고 그러하나 열매있나 뿌리로만 싹이 난다.
 특별하다 무궁화는 자랑할 말 하도 많다. 여름 가을 지나도록 무궁 무진 꽃이 핀다.
 그 씨 번식하는 것 씨 심어서 뽕뽕터러 접부쳐도 살 수 있고 꺾꽂이도 성하도다.
 오늘 한국 삼천리에 이꽃 희소 탄식말세 영원 변창 우리 꽃은 삼천리에 무궁화라.

무궁화 노래 (남궁 역)

1.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무궁화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다시 소생하는 이천만
2. 백화가 만발한 무궁화동산에 미묘히 노래하는 동무야
 백천만 화초가 웃는 것같이 즐거워하라 우리 이천만
 (후렴)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동산 잘살아라 이천만의 고려족

남궁역 선생은 자신에게 다가온 개인의 부귀와 성공이 약속된 미래를 버리고 겨레의 일꾼으로 분연히 일어난 선각자이자 지도자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겨레의 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해 일생을 사신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지도자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신 선생은 “나는 독립을 위하여 일했지만 독립을 보지 못하나 독립은 반드시 올 것이니 너희는 독립 후의 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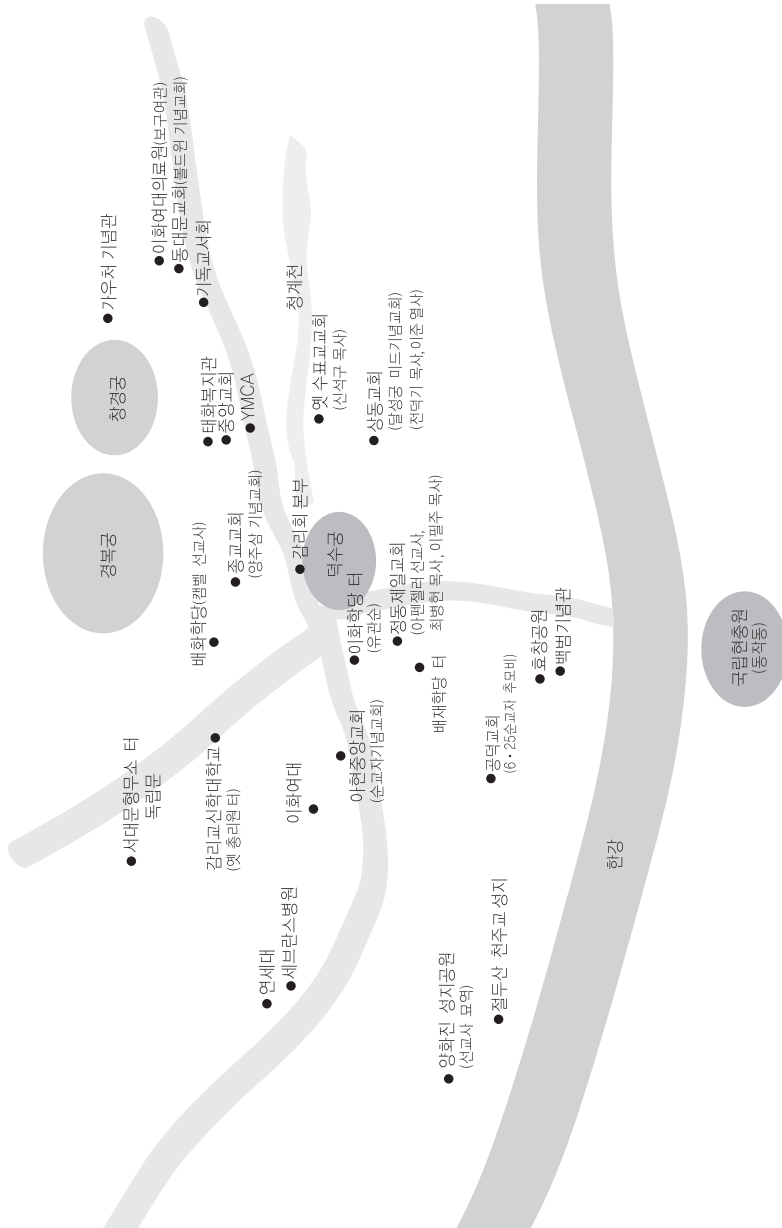
준비하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나무 밑에 묻어 거름이나 되게 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여생의 무대였던 강신재(신이 내리는 언덕-현재의 교회 터) 5,200평을 감리교회에 증여함으로 선생은 자신의 일생과 함께 남은 재산까지도 하나님께 바치셨다.

노년의 옥고와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흔일곱 해의 마지막 생애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선생은 이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사셨다. 올해는 선생이 이곳 모곡리로 내려와 교회를 세우고 무궁화운동을 펼치신 지 90년이 되는 해다. 한서교회는 이를 기념하여 그 뜻을 이어가고자 지난 1월 “성경통독 성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한 3·1절 기념행사는 서면면민이 참여하는 3·1운동 근인비 건립으로 이어지고, 선생의 노래와 무궁화를 주제로 하는 8·15 평화통일 음악회는 TV 생중계로 방영될 예정이다.



감리교회 역사유적 지도(서울)



순교자기념주일 자료 2

감리교회 역사유적 지도(전국)



전국 순교 및 유적지, 박물관, 역사자료실 안내

감리교회 관련

■ 감리회본부 역사정보자료실

<http://www.kmc.or.kr/head/head06.php>

개관시간 : 월~금 09:00~17:00

(오후 12~1시 폐관)

위 치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광화문빌딩) 16층

연 락 처 : 02-399-4306

■ 배재대학교 박물관

http://www.museum.or.kr/museum/museum_r.asp?m_no=188&m_kind=4&page=4

개관시간 : 월~금 09:30~17:00

(관람권 매표시간 :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연자1길 14

연 락 처 : 042-520-5259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http://www.museum.or.kr/museum/museum_r.asp?m_no=344

개관시간 : 09:00~16:30(화·목요일)

평일-사전예약필요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 락 처 : 02-2228-2550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http://museum.ewha.ac.kr>

개관시간 : 월~금 09:30~17:00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26 대현동 11-1

연 락 처 : 02-3277-3152, 3676

■ 이화여자대학교자연사박물관

<http://nhm.ewha.ac.kr/index.jsp>

개관시간 : 월~금 10:00~16:00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조형예술대학관A동 옆 건물 4층)

연 락 처 : 02-3277-3155

■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 박물관

<http://www.uhs.ac.kr/m6/m6s2dlf2.jsp>

개관시간 : 월~금 10:00~16:00

(방학기간 중 : 10:00~14:00)

위 치 :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14

연 락 처 : 031-299-0667

■ 성서학문헌정보 자료실

<http://www.bskorea.or.kr/organ/pds/default.aspx>

개관시간 : 월~금 09:00~17:00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 -16

연 락 처 : 02-3474-3061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http://www.jeam.go.kr/intro/index.htm>

개관시간: 매일 09:00~18:00(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휴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92-2

연 락 처: 031-369-1663

■ 국제성서박물관

<http://www.joan.or.kr/museum/01.htm>

개관시간: 평일 10:00~16:00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월요일/ 공휴일- 휴관)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93-3 주안감리교회

연 락 처: 032-874-0385

■ 유관순열사기념관

<http://www.yugwansun.com/>

개관시간: 매일 09:00~18:00(3~10월)

09:00~17:00(11~2월)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252

연 락 처: 041-564-1223

■ 유관순열사전사실(매봉교회)

http://www.encyber.com/comm/board/bl_view.php?tid=travelkorea&idxNo=8132

개관시간: 월~금

■ 이화박물관(이화여고 심슨기념관)

http://www.encyber.com/comm/board/bl_view.php?tid=travelkorea&idxNo=6330

개관시간: 월~금

위 치: 서울 중구 정동 32번지

■ 남궁억기념관(한서교회)

개관시간: 화~토

위 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2리 386

연 락 처: 033-434-1069

■ 감리교신학대학교 역사자료관

개관시간: 월~금 9:00~17:00

연 락 처: 02-3619-114 내선 33

■ 정동제일교회 역사자료실

개관시간: 사전 연락

위 치: 서울시 중구 정동 34

연 락 처: 02-753-0001

■ 내리교회 역사자료실

개관시간: 사전 연락

위 치: 인천시 중구 내동 29

연 락 처: 032-762-7771

■ 상동교회 역사자료실

개관시간: 사전 연락

위 치: 서울시 중구 남창동 1-1

연 락 처: 02-752-113

■ 종교교회 역사자료실

개관시간: 사전 연락

위 치: 서울시 종로구 도림동 32

연 락 처: 02-6322-2100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역

<http://www.yanghwajin.net/>

■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http://www.martyr.or.kr/>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http://www.kchmuseum.org/>

■ 선화기독교미술관

http://www.museum.or.kr/museum/m/museum_r.asp?m_no=272&m_kind=3&page=7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박물관(선교 · 의료 · 교육 · 역사박물관)

<http://www.dsmc.or.kr/about/cnt7-1.htm>

■ 한남대학교 백제문화 박물관(기독교선교문화자료실)

<http://bakmul.hannam.ac.kr/>

■ 언더우드가 기념관(연세대)

<http://www3.yonsei.ac.kr:8888/underwood/>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ttp://www3.ssu.ac.kr/museum/index.jsp>

■ 전주대학교중앙박물관

<http://museum.jj.ac.kr/kor/new/index.jsp>

■ 평강성서유물박물관

<http://www.apm.or.kr/>

■ 밀알미술관

http://www.museum.or.kr/museum/m/museum_r.asp?m_no=89&m_kind=&page=14

■ 예수병원 역사자료실

<http://www.jesushospital.com/>

■ 손양원순교기념관

<http://www.aeyangwon.org/>

■ 예수교대한장로회 역사자료관
종로5가



감리교회 순교, 수난자 및 위인전

-《한국감리교인물사전》과 《6·25와 한국감리교회 순교자》에서 발췌-



아펜젤러

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 2. 6~1902. 6. 11
미감리회 한국 개척 선교사
한국명 아편설라(亞扁薛羅)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서더튼에서 출생. 부친(Gideon)은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개척교회 교인이었고 모친(Maria Gerhard) 역시 독일계였으나 메노나이트파였다. 어려서부터 가정의 독실한 신앙적 분위기

기에서 성장하였고 14세 때 서더튼 교외 임마누엘개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1876년 웨스트체스터사범대학에 진학하여 수학하던 중 그곳 장로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의 체험을 했으며 그는 평생 이날(1876. 10. 6)을 제2의 생일로 기념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장로교회에 출석하였으며 1878년 부친의 뜻에 따라 다시 랭카스터에 있는 프랭클린앤드마샬대학에 진학하여 히브리어·그리스어 등 어학훈련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회심 이후 개척교회나 장로교회의 신앙유형에 대해 갈등을 가지고 있던 중 랭카스터 제일감리교회 기도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879년 감리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1882년 신학을 목적으로 뉴저지 주에 있는 드류신학교에 진학하면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절친한 친구 워즈워드(J.S. Wadsworth)에게서

그리피스가 쓴 *Korea, the Hermit Nation*을 빌려 읽고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처음 선교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다. 위즈워드가 그보다 더 열성적으로 한국 선교를 지원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1883년 10월 하트포드에서 열린 전국신학교연합회 집회에 드류신학생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여 해외 선교에 대한 열띤 강연을 들었으며 이때 뉴브론즈윅 신학생 대표로 참석한, 훗날의 선교동역자 언더우드(H.G. Underwood)도 만나게 되었다. 1884년 졸업반이 되었을 때 미감리회 해외선교부에서는 한국 선교를 결행하기로 하고 우선 학교와 병원사업을 추진할 선교사 후보를 물색하였다. 우선 병원사업자로 의사인 스크랜턴(W.B. Scranton)이 선임되었고 다른 한 자리를 위즈워드가 개인사정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아펜젤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1884년 12월 랭카스터에서 만난 청교도 후예인 닷지(Ella Dodge)와 결혼하였고 이듬해(1885) 함께 한국을 향해 출발하였다. 출발에 앞서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감리회 해외선교부 총무인 파울러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스크랜턴 부부와 함께 태평양 우편선인 아라빅 호를 타고 2월 27일 일본에 도착하였고 3월 5일 일본 주재 선교사 매클레이의 서재에서 제1회 한국선교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는 일본에 머무는 한달 동안 갑신정변으로 망명해 있던 박영효에게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다.

본국 파울러 감독의 지시에 따라 한국선교부 부감리사로 임명받은 그는 나가사키로 가서 미북장로회 선교사로 임명받은 언더우드와 합류하였고 미츠비시 선박회사의 배편으로 요코하마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였다. 그 배에는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외에 고종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뮐렌도르프(P.G. Möllendorf)도 끼어 있었다.

4월 2일 부산에 도착하여 하루 정박하는 동안 하선하여 처음으로 한국 땅을 거닐었고 다시 배는 제물포를 향하여 북상,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 부활절날 제물포에 상륙한 아펜젤러는 그날의 감격을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는 부활절날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

창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엮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서울은 아직도 불안한 정세여서 외국인 여자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당시 미국 대리공사 폴크(G.C. Foulk)의 충고대로 인천의 여관에서 일 주간을 머물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한 달을 머물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지냈다. 그 사이 스크랜턴이 혼자 서울에 진출하여 정동에 집을 마련하였고 아펜젤러 부부는 7월 19일에야 서울에 들어올 수 있었다.

우선 그는 폴크를 통해 학교 설립의 가능성을 한국 정부에 타진하여 국왕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자 8월부터 두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것이 배재학당의 시초였다. 1886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감리교교리서를 한글로 번역·출판하였고 매서인을 고용해 전도를 시작했으며 자신도 배재학당 학생 등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886년 부활절에 일본대사관에 근무하던 다카히라라는 일본인에게 첫 세례를 베풀었고 이듬해에는 배재학당 학생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1887년부터는 한국 선교부 감리사가 되면서 학교·병원·복음전도의 제반 선교 사업을 관장하였다. 그 해 정동에 1층짜리 양옥을 건축하여 학교교실·예배당·선교본부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성경공부를 위한 별도의 집을 마련하여 ‘벤엘예배당’을 설립하고 1887년 10월 9일 첫 공중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정동제 일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선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자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함께 지방전도여행에 나서 1888년 봄 소래를 거쳐 평양까지 순회하였고 그 해 8월에는 감리교의 존스(G.H. Jones)와 동행하여 강원도·경상도 지방을 순회하였다. 1888~1890년에 그는 전국 8개 도 중 6개 도의 각 지방을 순회하였는데 총 여행거리는 1,800마일에 이르렀다. 언더우드와의 친분관계로 한국에서의 감·장 양 교파 선교구역 분할도 큰 마찰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1887년 선교사들로 조직된 한국성서위원회 서기로 선출되어 성서사업의 실질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우선 성해론 등과 협의하여 1890년 ‘한국성교서회’(韓國聖敎書會: 현 대한기독교서회)를 창설하였고 1892년부터는 회장이 되어 문서사업을 관장하였다. 올링거가 맡아하던 ‘감리교출판소’ 까지 맡게 되었고 선교사들의 연구지인 *The Korean Repository*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이었으며, 자신이 시무하는 정동제일교회도 1897년 10월 붉은 벽돌의 서양식 예배당으로 신축하였다.

아펜젤러는 또한 한국 청년운동에도 큰 공을 남겼다. 갑신정변 때 미국으로 망명했다 귀국한 서재필과 손잡고 배재학당과 정동교회 내에서 기독교청년운동을 벌였으며 독립협회 운동도 적극 후원하였다. 1897년 가을 정동제일교회 안에 엠티청년회를 조직했고 1899년에는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에서의 YMCA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01년에는 배재학교 내에 최초의 학생 YMCA가 설립되기도 했다.

그리고 독립협회사건(1898)으로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투옥되었을 때 옥중으로 방문, 전도하여 이상재·이승만·유성준·김정식·홍재기·안국선·김린·이원공·남궁억 등이 기독교인이 되는 동기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이승만·신흥우·정교 등이 그와 각별한 친분관계를 맺게 되었다.

1897년 2월 그는 한국 최초의 순한글 종교신문인 <조선크리스토회보>를 창간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도 민족계몽과 복음선교의 내용을 전하였다.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활동으로 건강이 나빠졌으며 40대의 나이인데도 외모는 노인의 모습을 나타냈다. 1900년 그가 2차 안식년을 맞아(1차는 1891년) 귀국할 때 고종 황제는 그를 특별히 불러 노고를 치하하고 선물을 내리기까지 했다. 안식년 휴가 후 귀국한 그는 새로이 구성된 미감리회 남지방회 감리사로 임명받아 서울 이남 지역의 교회들을 관장하게 되었다.

1902년 6월 1일 그는 무어 감독, 스웨어러 목사 등과 함께 서울 근교 무지내 교회로 가다가 경부선 철도공사를 하던 일본인 노무자들에게 행패를 당해 이 일로 6월 첫 주일 목포에서 열린 성서번역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1주일 늦은 6월 11일에야 인천을 떠날 수 있었다. 그는 조사 조한규와 목포가 고향인 여학교 학생을 데리고 일본 상선 구마가와마루를 탔으며 짙은 안개로 그가 탄 배가 군산 근처 어청도 앞바다에서 같은 일본 상선과 충돌, 침몰하며 함께 목숨을 잃었다. 다만 같은 배에 탔다가 생환한 미국인 탄광기술자 보올비가 물에 잠기면서도 함께 간 비서와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던 아펜젤러의 마지막 모습을 증언할 뿐이었다. 6월 29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된 추도예배에서는 각 선교부 선교사들과 한국인 목사와 교인들, 외국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으며, 그가 죽은 지 30여 년이 지난 1935년 정동제일교회 안에 기념비가 세워져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❶ 참고문헌 : 이만열 편, 《아펜젤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하디

Robert A. Hardie
1865. 6. 11~1949. 6. 30
성령운동가
한국명 하리영(河鯉泳)

캐나다 온타리오 주 칼레도니아에서 출생한 하디는 고향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곳에서 2년여 동안 교편을 잡다가 1886년에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의학의 꿈을 키웠다. 그가 해외

선교사의 꿈을 키운 시기는 의대 2년 시절 ‘기독교 외국 선교 학생자원운동’에 가입하면서였다. 1887년 켈리(Matilda Kelly)와 결혼하였고 1890년 의과대학을 졸업하자 곧 캐나다대학 선교회의 선교사로 임명(독립선교사로 8년간 한국 선교사가 된 것)되었다.

1890년 9월 30일 가족을 모두 데리고 부산항에 도착하여 부산에 체류하던 계일과 함께 선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서울로 올라와 애비슨 의사와 함께 제중원에서 환자를 돌보았고 1891년 4월 14일 다시 부산 선교지로 내려갔다. 1892년 11월 11일 함경남도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기고 미감리회 경영의 시약소에서 일하였다. 이듬해 봄 전셋집을 얻어 그 스스로 진료소와 시약소를 운영하던 중 1898년 캐나다대학생선교회와의 계약이 끝나자 5월 미국 남감리회 선교회에 가입하여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1901년 10월 20일에는 원산 및 동해안의 미감리회 선교지역이 남감리회로 양도되면서 하디는 더욱 넓은 선교지역을 맡아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미 1901년 3월 31일 김화 지경터에서 장년 15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조직하였으니 이것이 강원도의 첫 교회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자신의 선교 역량 부족과 영적 능력의 결핍을 다음과 같이 솔직한 바 있다.

“나는 3년 동안 남감리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터에서 애써 일을 하였으나 선교사업에 실패하였다.”

그 뒤 그는 갈급한 심령으로 1903년 8월 원산에서 감리회 선교사 7명과 함께 모여 중국에서 활동하던 남감리회 화이트(M.C. White) 선교사를 강사로 기도회와 성경사경회를 열었다. 이때 하디는 큰 감화와 은혜를 받는 새로운 체험을 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신 실증을 가지고서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죄악을 자복하니 회중도 강한 죄의식과 믿음의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고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이며 이는 곧 1907년 대부흥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1907년 연초부터 시작한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곳 감·장 선교사들이 하디를 초청, 연합 사경회를 개최하면서 비롯되었다. 하디는 자신의

깊은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회개운동을 촉구함으로 한국 교회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이룩하게 한 중심인물이 되었다.

한편 감리교 협성신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던 중 1909년에는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1922년까지 재직하면서 학교의 기틀 확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6년에 <신학세계>를 창간하여 본격적인 신학 전문지로서의 문서선교에 일익을 감당했고 1921~1927년에는 조선예수교서회 총무직을 맡아 활약하였다. 1935년 4월 24일 45년 동안의 한국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미시건 주 랜싱에 거주하며 여생을 보냈다. 1945년에 부인이 먼저 별세하였고 그는 1949년 별세했다. 부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11살에 세상을 떠났다.

● 저서 : 《마가복음강문태》, 1915 ; 《신약총론》, 1918 ; 《구약총론》, 1921 ; 《다니엘서 강해》, 1921 ; 《마태복음야고보공과》, 1915.



권명주

權明周
1903. 1. 19~1950. 7
장로, 교육가

1903년 1월 19일 함경남도 문천군에서 태어나 서당, 보통 학교를 거쳐 평양 광성보고(1925)와 협성신학교(1929)를 졸업하였다. 1919년 3월에 세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웅변에 재능을 나타냈고,

1920년에는 원산에서 독립만세 사건으로 체포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협성신학교에 입학한 후인 1925년 9월부터 공덕리 유년주일학교와 관련을 맺으면서 공덕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감리회 종교교육협회에 근무하면서 공덕리교회 엠티청년회 총무·회장, 주일학교 교장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 6월 전도사(장로) 직첩을 받았다. 또 무산아

동의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여자야학(1929), 남자야학(1930)을 개설하고 교장으로 헌신하였다. 서울 용강동에서 식용유 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덕리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제 말기에는 공덕정교회 애국반 위원, 신도단 의무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해방 후 감리교회가 일제하에 저지른 반민족적·반신악적 행위의 청산문제를 놓고 복흥파와 재건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였는데 권명주 장로는 1949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지상명령에 복종하여 감리교를 하나로 합하는 과정을 주도하였다. 그는 복흥파를 대표하는 14인의 통합전권위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여 복흥파·재건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결실을 이루어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공덕교회는 큰 수난을 당하였다. 수난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인민군 정치보위부가 공덕교회에 거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공덕교회는 예배당과 주택뿐 아니라 교회 인근에 이왕직능관리인이 지은 대저택, 또 예배당 바로 뒤에 20여 명이 피신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어 인민군이 거주하기에 좋은 상황이었다. 인민군 정치보위부는 대저택을 마포지방 본거지로, 공덕교회 예배당은 취조하는 건물로, 방공호는 감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공덕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모든 종교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당 남쪽 벽이 포탄을 맞아 창문과 벽이 절반가량 무너지는 피해를 당하였다. 수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로들과 청년들도 큰 고통을 당하였다. 당시 서울여자상업학교에 재학하던 청년회 회지인 〈빛〉의 발행인과 회지들을 내놓으라는 취조를 당하였다. ‘태극당’을 조직하여 반공 게릴라로 활약한 청년회 회원들은 더러는 인민군에 붙들려 순국하기도 했고, 더러는 행방불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피해는 권명주 장로, 김익용 장로, 조민형 장로가 납치된 것이다. 이들 중 권명주 장로는 1950년 9월 10일 인민군 정치보위부에 잡혀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였다. 유족으로 권진형 장로 외에 2남(진호, 진택) 1녀가 있었다.

공덕교회에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때 납치된 세 분의 장로를 기념하는 ‘6·25 순교 추모비’를 2002년 세웠다. 추모비에는 “6·25 순교 추모

비, 권명주 장로, 김익용 장로, 조민형 장로,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 6·25전쟁 때 위 세 분이 남북 순교하셨다. 이분들의 고귀한 신앙을 길이 계승하고자 우리는 100주년기념주일에 이 비를 세운다. 2002년 10월 6일(공덕감리교회)”라는 내용을 새겨 넣었다.

❶ 참고문헌 : 조이제, 《공덕교회 100년사》, 공덕감리교회 역사편찬위원회, 2004.



권원호

權元浩
1904. 8. 5~1944. 4. 13
전도사, 순교자

평안남도 중화군 중화면 신
우리에서 권오방(權五方)의 장
남으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2
월 7일 윤순덕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으며 강원도 고성
으로 이주하여 상업에 종사하

다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였다. 권사의 직분을 받고 주일에는 가게 문을 꼭 닫
던 그의 소원은 교역이었다. 1936년 7월 28일 고성읍이 큰 홍수로 거의 전멸할
때에 그는 가족과 세간을 전부 떠내려 보냈다. 그러나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집
과 세간은 모두 잃었으나 온 식구가 무사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리고는 “주님, 저를 살려주셨사오니 어디든지 보내주
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인 중에는 신
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교역을 하겠느냐고 비방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못들은 체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1938년 강원도 통천군 흡곡면 명고리 통천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다.
1939년 5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모였던 제7회 동부·중부·서부 연합연회
때에 원산지방 회양읍교회 전도사로 파송받았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심방하
며 전도하여 연약하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나왔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자 그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도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설교를 통해 교인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예수재림”, “구주탄생”, “무주공산 삼천리” 등의 제목으로 설교하며 일본이 아무리 칼과 권력으로 한국인을 사로잡으려 해도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것이요, 일본의 천황까지도 예수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쳤다. 그가 “신사참배 문제”란 제목으로 신사참배 반대와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설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하한 물건이라 해도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신사도 인조물인 이상 우상이다. 더욱이 예수는 세계인류를 지배할 유일신이다. 천조대신은 일본국을 조성한 신이지만, 여호와와 사자로서 일본국을 지배할 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신은 우상이다. 우상인 이상 신사에 경배시키는 경찰관은 종교 횡방꾼이다.”

1940년 첫 주일,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거부하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가택수색을 하다가 그의 집에서 태극기가 나오자 일본 경찰은 큰 수확을 얻은 듯 그를 체포하였다. 한편 태극기는 권 전도사의 집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교우들의 집에서도 나오자 일본 경찰은 정신없이 날뛰었지만 아무런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일본 경찰은 할 수 없이 권 전도사만을 구속하여 여러 가지 심문을 하고는 최후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다. 첫째는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 둘째는 자살하는 것, 셋째는 평생 감옥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너희가 나를 악형하여 가두었으니 도망할 수 없고, 자살은 기독교인이 큰 죄로 아는 것이니 할 수 없고, 평생을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삼천리강산이 구치소요 이천만 동포가 미결수인데 사회가 감옥과 다를 것이 무엇이나”고 하였다. 결국 불경죄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그는 몸이 강대하고 튼튼하였으나 일본 경찰의 혹독한 고문과 악형의 여독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서대문감옥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옥사하였다.

❶ 참고문헌 : 윤춘병 · 조명호 편저, 《마라나타》, 보이스사, 1990.



김구

金九

1875. 7. 11~1949. 6. 26

독립운동가

본명은 창암(昌巖), 이후 창수(昌洙)로 개명, 호는 백범(白凡)

황해도 해주 백운방에서 빈농이었던 부친 김순영(金淳永)과 모친 광락원(郭樂圓)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1892년 동학에 입도하였고, 이듬해 황해도 도유사(都有司)의 한 사람으로 뽑혀 충북 보은에서 최시

형을 만났으며, 1894년 해주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해주성을 공략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안태훈(安泰勳, 안중근의 부) 진사를 찾아가 몸을 의탁하며 고능선(高能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다 곧 만주로 건너가 김이언(金利彦)의 의병에 가담하여 평북 강계를 습격하려다가 재차 실패하여 귀국했다.

1896년 2월 황해도 안악에서 일본군 중위를 살해한 혐의로 그 해 5월 체포되어 인천의 감리영(監理營)에 옮겨져 사형언도까지 받았으나 고종의 특사로 감형되어 사형을 면했다. 1898년에 탈옥, 전국을 방랑하다가 한때 공주 마곡사(麻谷寺)에 입산하기도 했으나 곧 환속(1899)하여 안악에 돌아갔다. 1902년 여옥(如玉)이라는 처녀와 약혼하는데, 이듬해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기독교에 입교하였고, 이듬해인 1904년 최준례(崔遵禮)와 결혼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도처에서 일제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 이루어졌다. 이때 그는 진남포 애플청년회 대표로 서울에 올라와 상동교회에 머물면서 을사보호조약 무효상소운동을 결의하고 그 해 11월 26일, 도끼상소에 참가했다. 1차 상소가 일본군에 의해 무력진압되고 수십 명이 체포되자, 상동교회에 다시 모인 지도자들은 상소와 같은 구시대적인 방법을 바꾸어 민중계몽을 목적으로 한 교육사업에 전력하기로 하였다. 이후 그는 고향에 돌아와 1906년 해서교육회 총감, 1908년 안악 양산학교 건립, 1909년 재령 보강(保强)학교 교장 등으로 교육사업에 헌신하는 한편, 신민회를 통한 구국운동에도 앞장섰다.

1910년 11월, 안중근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이 서간도에 서울 무관학교 설립자

금을 모으다가 일제에 의해 검거되자, 일제는 이를 총독암살자금이라고 날조하여 사건을 확대시켰으며, 많은 황해도 민족지사들을 검거하는데, 그 또한 1911년 1월 5일 체포되어 17년형에 처하였다(옥중에서 이름을 구, 호를 백범이라 고침).

그 후 그는 1914년 7월 가출옥하여 농촌계몽운동에 힘쓰다가,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고, 1923년 내무국장에 취임했다. 이어 1926년 임시정부의 원수인 국무령(國務領) 취임, 1927년 헌법개정으로 위원제로 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취임, 1928년 이동녕·이시영 등과 한국독립당 조직, 1929년 재증 거류민 단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1931년 한민애국단을 조직, 그가 단장을 맡아 독립투사를 양성하였고, 이듬해 1월 8일 일황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과,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등을 지도하였다. 한편 윤봉길의 의거로 신변이 위험해지자 1933년 피신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임시정부 국무령에 취임하였으며, 1939년 여러 곳을 전전하다 중경으로 옮긴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다시 취임하였다.

1941년 12월 9일, 곧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그 다음날, 그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하였고, 이어서 1942년 7월 임시정부와 중국국민당 사이에 광복군에 대한 정식협정이 체결되어, 광복군은 중국 각지에서 연합군과 공동작전에 진력하였다. 이어 1944년부터 본토 상륙을 위한 군사훈련을 준비하다가 본격적인 국내유격전을 전개해 보지도 못한 채, 연합군에 의해 타올로 8·15해방을 맞이했다.

그는 1945년 11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고, 얼마 뒤인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5년간 위임통치를 결정하자, 곧 반탁 국민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1946년 2월 비상국민의회가 조직되어 총리에 취임했으며, 1947년 1월 비상국민의회가 개편된 국민의회 부주석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그는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자 이승만과 함께 반탁투쟁을 추진했다. 백범의 반탁투쟁 목적은 분명했다. 그것은 곧 항일 세력의 통합으로 외세에 의한 분단을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백범은 1947년 11월 유엔 감시하의 남북 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 결의를 지지하고, 이듬해인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협상을 하는 등 단독정부를 반대하고 통일된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반탁전선을 빙자하여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던 이승만은 그를 소련의 앞잡이로 내세워 모략하는 등 불화가 계속되었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京橋莊)에서 안두희(安斗熙)의 흉탄에 맞아 서거하였고, 그의 장례는 1949년 7월 5일 거족적인 국민장으로 집례되어 효창공원에 영면하였으며,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중장(重章)이 수여되었다.

❶ 저서 : 《백범일지》.



김영학

金永鶴
1877. 2. 10~1932. 12
목사, 순교자

황해도 금천군 조포동에서 태어났다. 1886년부터 1893년까지 한문을 공부했으며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어느 날 시장에서 전도인에게 물을 퍼붓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 그 전도인이

오히려 웃으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김영학은 감동받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1907년 4월 세례를 받았으며, 입교한 지 1년 만에 권서인으로 활동하였다. 1911년 9월 정식으로 남감리교 전도사 직첩을 받았으며 1914년 8월 집사 목사 안수를 받고 1915년 6월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장로목사가 되었다.

평산구역장(1909~1910)을 시작으로 금천구역장(1910~1911), 장단구역장(1911~1914), 철원구역장(1914~1915)을 거쳐 서울 광희문교회(1915~1917), 수표교교회(1917~1918), 간성구역(1918~1920)에서 목회했다.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간성구역장으로 활동하며 양양교회 교인들을 비롯해 주민들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 후 출감했다. 출옥 후 간성구역장으로 계속 시무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산하 애국운동단체인 애국단 국내지부조직 ‘철원애국단’의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1920년 10월 주동자 김상덕과 기독교 인사 박연서 전도사, 방기순 목사 등과 체포되어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1922년 석방되었다. 감옥에서 나와 가평교회를 시무하며 남감리회의 선교백주년기념사업에 참여하다가 그 해 9월 만주 및 시베리아 선교사로 자원하여 파송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구역 관리자 겸 해삼위교회로 임명된 그는 만주·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독립군과 한인촌 동포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3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연해주지역 기독교 탄압과 관련하여 많은 고난을 겪었다. 김영학은 이러한 사정을 1924년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시험과 핍박이 떠나지 않는 중 특별히 해삼지방은 니콜스크지방이나 연추지방보다 우심하였사오며 겹하여 도적과 흉년이 교회를 가해하는 가운데 주를 자세히 알지 못한 자와 믿음의 정신이 유약한 그리스도인들로써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케 하여 배교한 자를 다 출케 하였으니 어찌 그들을 대하여 신음한 눈물이 없으리오마는 이것이 주의 뜻인 줄로 인식하옵고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며…….”

1930년 공산당에 체포되어 배교를 강요당하다가 이듬해 3월 10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1932년 음력 12월 신한촌 인근 노역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면서 수십 명이 빠져 죽었는데 김 목사도 이때 순교했고 시베리아 선교도 막을 내렸다. 1933년 12월 7일 간도 용정에서 개최된 제3회 만주선교연회를 시작하면서 배형식 감리사 사회로 추도식을 가졌다.



김유순

金裕淳,
1882. 12. 17~1950 ?
목사, 감독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났다.
1904년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아버지(김영식)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1912년 미국 남가주 성경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해 9월 목사 안수를 받고

1913년 귀국해 정동제일교회, 강화 달오지교회, 흥천교회 등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여
신성한 은혜를 받게 하였으며 이후 경성지방 순회목사로 활동하며 “여러 교회와 교인에게 복이” 되었다.
1917년 10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 마디슨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1920년 귀국 후 다시 순회부흥목사로 활약하였다.
1921년부터는 평양 남산현교회를 담임하였고, 1923년 충남 홍성지방 감리사,
1926년 황해도 해주지방 감리사, 1929년 해주지방 감리사 겸 백천구역 담임,
1930년 천안지방 감리사 겸 천안읍교회 담임, 1935년 서울남지방 만리현교회를 각각 시무했다.

해방 후에는 1947년부터 북아현교회(현재의 아현교회)를 담임했으며 1949년에는 제9대 감독으로 피선되었다.
1949년 4월 북흥파와 재건파가 통합되어 ‘하나의 감리교회’가 될 때 중립에 선 화해론자였던 그가 감독으로 피선되어 다음과 같이 ‘주의 작은 중’ 된 자세로 새롭게 출발하는 감리교회를 이끌었다.

“천만 뜻밖에 금번 우리 총회에서 이 무능한 사람을 우리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진실로 두렵고 떨립니다. …… 여러분의 종으로 피선된 이상에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편달을 기쁘게 받을 작정입니다. 저 인력거꾼처럼 가자시는 길로만 가렵니다. 우편으로 가라시면 우편으로 좌편으로 가자시면 좌편으로 또 서라시면 서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거룩하고 옳은 길인지 분명히 알고 꼭바로 지도하시옵시오. 그렇게 하여 주시면 교제는 주의 도우시는 대로 성심으로 쫓아 시행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조선감리회보〉, 1949. 5. 15)

그러나 그는 감독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감독이 된 지 1년 남짓 하여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는 체포되어 북으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공산당 통치 아래에 들어갈 뿐 아니라 감리교신학대학 안에 있던 총리원 사무실을 공산당에게 빼앗기자 교인들은 그에게 피난할 것을 간곡히 권했다. 그러나 그는 이 권면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 10:11)는 목회 원리로 다음과 같이 단호히 물리쳤다 한다.

“내가 감독이 된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안다. 교회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는 못되나 주께서 나에게 감독의 중책을 맡기셨으니 어찌 이 양들을 이리 같은 공산당에게 맡기고 피하겠는가? 나는 양과 같이 생명을 버려 순교할 결심을 하였으니 다시는 권하지 말라.” (김춘배, 《한국기독교수난사화》, 성문학사, 1969, 211쪽)

감독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어찌 교인을 두고 피난가겠냐며 서울에 남았다가 결국 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8월 23일 전국적으로 비밀리에 내린 교역자 납치 및 사살령에 의해 정치보위부원에게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이튿날 북으로 끌려간 후 생사를 알 수 없다. 김유순 목사는 “이름과 같이 유순하고 덕이 있는 목사요, 노할 줄 모르는” 인격자며, 겸손하게 양을 돌보는 목회자였다.

김유순 목사는 순행목사, 즉 부흥사로도 활동하였다. 다른 사람과 달리 그는 미국 유학을 하고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부흥운동에 매진하였다. 유학 직후인 1913~1917년과 1920~1921년 동안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교회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였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성신의 권능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 “눈물 흘리며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와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많았다.



김익용

金翼鏞

1893. 1. 9~1950. 7
장로, 교육자, 사업가

1893년 1월 9일 서울 종로
구 청운동에서 유학자인 김치
중의 3남으로 출생하여 보통
학교에서 수학한 후 배재학당
전문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
고 졸업(제4회)하였다. 1916년
부터 협성여자신학교에서 서

무 일을 보면서 한문과 역사도 가르쳤고 학생과 책임자로 20년간 시무한 후 금
광개발의 광업을 경영하였다.

1919년 용강면 염리동으로 이사하면서 공덕교회에 출석하였다. 교회에서 물
산장려운동을 주도하였고, 문맹퇴치와 무산아동 교육을 위해 염리동에 ‘동명강
습소’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공덕교회는 큰 수난을 당하였다. 수난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인민군 정치보위부가 공덕교회에 거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당
시의 공덕교회는 예배당과 주택뿐 아니라 교회 인근에 이왕직능관리인이 지은
대저택, 또 예배당 바로 뒤에 20여 명이 피신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어 인민군
이 거주하기에 좋은 상황이었다. 인민군 정치보위부는 대저택을 마포지방 본거
지로, 공덕교회 예배당은 취조하는 건물로, 방공호는 감방으로 사용하였다. 이
로 인해 공덕교회는 예배당 아니라 모든 종교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
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로들과 청년들도 큰 고통을 당하였다. 당시 서울여자
상업학교에 재학하던 이선희(나중에 대전보육대학 학장으로 활동)는 7월 초쯤 치안
대에 잡혀가서 청년회 회지인 <빛>의 발행인과 회지들을 내놓으라는 취조를 당
하였다. ‘태극당’을 조직하여 반공 계릴라로 활약한 청년회 회원들은 더러는 인
민군에 붙들려 순국하기도 했고, 더러는 행방불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피해는 권명주 장로, 김익용 장로, 조민형 장로가 납치된 것이다. 그중 김익
용 장로는 1950년 7월 7일에 인민군 정치보위부에 끌려가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지내다가 소식이 끊어졌다. 유족으로 김명한·김용한·김규한 장로를 비롯해 8

남매가 있었다.

공덕교회에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때 납치된 세 분의 장로를 기념하는 ‘6·25 순교 추모비’를 2002년 세웠다. 추모비에는 “6·25 순교 추모비, 권명주 장로, 김익용 장로, 조민형 장로,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 6·25전쟁 때 위 세 분이 남북 순교하셨다. 이분들의 고귀한 신앙을 길이 계승하고자 우리는 100주년기념주일에 이 비를 세운다. 2002년 10월 6일(공덕감리교회)”라는 내용을 새겨 넣었다.

❶ 참고문헌 : 조이제, 《공덕교회 100년사》, 공덕감리교회 역사편찬위원회, 2004.



손정도

孫貞道

1882. 7. 2~1931. 2. 19

목사, 독립운동가, 자는 호건(浩乾), 호는 해석(海石)

손정도는 1882년 평남 강서군 증산면 오흥리에서 전통적 유학자인 손몽룡(孫夢龍)과 오신도(吳信道) 사이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특히 그의 모친 오신도는 1919년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13세 때, 박신일(朴信一, 1879~1967)과 결혼하고 20세 되기까지는 고향에서 한문을 배우는 평범한 생활로 지냈다. 1902년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평양으로 가던 중 조(趙)씨 성을 가진 마을에서 하루를 유학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집이 목사의 집이었다. 그는 그 목사를 통해 신학문과 기독교 진리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고 원래 성격이 활달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는 그 밤에 “몸이 떨리는” 감동을 체험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튿날 아침 그 목사는 손정도의 상투를 잘랐고 손정도는 평양 길을 포기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단발령으로 의병까지 일어났던 당시 풍토에서 갑자기 상투를 자르고 나타난 손정도의 행동은 분명 하나의 혁명이었다. 게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집에 있던 사당을 때려 부수자 집안에서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내쫓았다. 그는 눈 덮인 산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실신하여 주민들에게 구출되었다.

그는 전날 만났던 평양교회의 목사를 찾아갔고 그 목사는 그를 평양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무어(J.Z. Moore, 문요한) 목사에게 보냈다. 무어 목사는 그를 자신의 비서 겸 어학선생으로 삼고 숭실중학교에 입학시켜 공부하게 했다. 1904년에 입학하여 1908년에 졸업하였는데(제5회), 1907년 평양지방을 휩쓴 대부흥운동에 자극받아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 서울에 있는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진학하여 1910년 졸업하였다. 1909년 미감리회 조선매년회는 그에게 정식으로 전도자 직책을 주어 전도사업에 전념케 하였다.

첫 목회지는 진남포였다. 남달리 의분이 강했던 그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외치면서 설교 때마다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규탄하였고 그의 열심 있는 전도로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 이 같은 목회 실력을 인정받아 1911년 집사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즉시 만주지방 선교사로 선택되어 모교인 숭실학교 지원을 받아 만주지방에 파송되었다. 먼저 북경에 머물면서 중국어를 배웠는데 이때 조성환(曹成煥), 백영엽(白永燁) 등 민족운동가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이것이 후에 그가 가츠라(1849~1913) 공작 암살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수난을 겪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어에 어느 정도 자신을 얻게 된 그는 목적대로 하얼빈에 본거지를 두고 만주 땅에 이주해 온 한국인 실향민뿐 아니라 만주 중국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실의에 빠진 한국 이주민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을 심어주어 민족운동가로서의 역할을 널리 발휘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노력과 성과들을 우려한 일제에 의해, 만주 교포사회에 점점 영향력을 넓혀 가는 기독교 세력을 제거할 목적에서 1912년 소위 가츠라

암살음모사건이 조작된다. 이때 일제는 조성한, 백영엽, 손정도 등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악형을 가했다. 1년 만에 일단 무혐의로 석방된 그는 다시 북간도 무관학교 설립기금 모금사건으로 체포되어 결국 1년간 전남 진도로 유배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인 진도에서도 복음전파와 독립정신 고취에 진력하였고 1년 후 서울로 돌아올 때엔 섬 주민들이 뱃길을 막으며 이별을 아쉬워할 정도였다고 한다.

감리교회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로 돌아온 그는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파송되었고 1년 후인 1915년 감리교회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로 다시 파송되어 시무하였다. 1918년 장로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3년간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정동제일교회 부임 이후 “열렬한 영적 능력의 설교와 전도적 품격은 전국을 통하여 상동의 전덕기 목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훌륭한 성직자”(장석영 목사)로 교인 수를 2,283명으로 올려놓아 당시 전국에서 으뜸을 차지하는 교회로 발전시켰다. 또한 교회 증축 공사도 무사히 마무리하고 남녀구분 예배도 폐지하며, 교회 안에 의자를 놓아 장안의 화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처럼 열성적인 목회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 3·1운동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인 1918년 겨울 그는 갑자기 정동제일교회를 사임하였다. “신병을 치료할 겸 몸을 쉬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사임 이유였으나 실상은 의친왕 이강(李垙) 공과 하란사(河蘭史)를 파리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상해로 가서 공작하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그는 우선 가족을 이끌고 평양으로 옮겼고 상주(喪主)로 변장한 채 열차 편으로 안동을 거쳐서 상해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일제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한 채 상해에서 3·1운동을 맞았다.

3·1운동 이후 그의 민족운동 활약상은 눈부신 것이었다.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개최된 임시정부 의정원이 결성될 때 초대 부의장에 선출되었고(의장

은 이동녕) 그 해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최된 의정원 회의에서는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9월 6일 병중에도 의정원 회의를 주재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계속 상해에 머물면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1920년 1월에는 김구, 김철, 김립, 윤현지, 김순애 등과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였고, 그 해 백영엽, 차이석, 주요한 등과 함께 안창호가 주도하는 흥사단(興土團)에 가입하였다.

1922년 2월 23일에는 대한적십자회 회장에 선출되었고, 그 해 10월 28일에는 독립전쟁 비용조달 및 군인양성을 목적으로 노병회(勞兵會)를 조직하여 노공부장(勞工部長) 직을 맡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 북경에서 개최된 감리교 동아선교대회에 백영엽과 함께 참석하여 국내에서 온 현순(玄楯), 신흥우(申興雨) 등 대표들과 회동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한국독립운동의 진상》(한영판)을 회의에 참석한 외국 선교사들에게 나누어주며 우리의 독립운동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 내 계열간의 불화로 독립운동이 답보상태에 이르자 그는 1921년 근거지를 만주 길림으로 옮겨 길림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한편 만주 각지에 산재해 있는 무장독립단체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무장 독립운동가 현익철(玄益哲), 오동진(吳東振), 김동삼(金東三) 등과 끊을 수 없는 의형제 관계를 맺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길림으로 이주한 후 그가 세운 첫 공적은 안창호 구출작전이었다. 1927년 2월 상해를 떠나 북경을 거쳐 만주 일대를 순회하며 민족단결과 경제발전을 요청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던 안창호 일행이 일제의 사주를 받은 장작림(張作霖)의 계교로 중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일경에 넘겨질 위기에 처하자 이를 안 손정도는 동지 백영엽과 함께 백방으로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장작림의 아들 장학량(張學良)에게 직접 호소하여 결국 안창호 일행은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다.

손정도는 이어 길림에서 1927년 4월 1일 농민 중심의 독립운동 단체인 농민

호조사(農民互助社)를 창설하여 농촌의 교육, 영농기술 개발, 보건위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하는 중에도 목사로서의 직분도 충실히 감당하여 그가 담임하는 길림 한인교회 내에 유치원과 공민학교를 설립하여 교포 2세의 교육과 민족정신 고취에 전심하였고 몸을 돌보지 않고 교포사회 발전에 헌신하였다. 이 당시 그가 <기독신보>에 기고했던 “만주선교의 요구”라는 글에서도 그의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만주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그 애절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이와 우리 만주선교 대야 내디에 계신 교회 형제자매가 간절 으로 을 합고 힘을 합야 후원을 해 주어야 겿습니다. …… 인정과 풍속이 다른 외국에 와서 말 모르고 돈 업스니 어더케 살겠습니가. 몬저 온 사의 소개로 국인의 집에 우거야 살게 되나 국인의 땅을 었고, 국인의 량식을 먹으며, 국 사의게 돈을 빚내여 의복을 지으며 가용을 쓰게 되니 일년 동안 농 후에 국 사람의게 임의 쓴 빚을 회계면 남는 것이 업지라 십년이라도 국 사람의 집에서 떠날 슈가 없고 국인의게 종사리가 되이다. 사오십만 동포를 부유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자가 어잇겿습닛가?” (<기독신보>, 1924. 8. 6, 8, 13)

또 북한의 김일성도 이 당시에 손정도의 길림에서의 활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이 80회 생일을 맞은 1992년 4월에 출간된 《세기와 더불어》라는 저서에서 그는 유년 시절부터 1930년까지의 회고를 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신의 삶에 기독교가 적지 않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아버지가 숭실학교 출신으로 평양에 있을 때부터 손정도 목사 집안과 “뜨거운 우정”을 나누었으며, 손정도 목사가 임시정부를 떠나 길림에서 예배당을 운영할 때, 김일성은 이 예배당을 대중 교양장소로 널리 이용했고, 손 목사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렇듯 손정도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손정도 목사는 이와 같은 헌신적인 활동으로 결국 건강을 해쳐 1929년 교회 목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신병 치료를 위해 봉천에 있는 둘째 사위 신국권(申

國權, 당시 동북대 교수)의 집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가 길림을 떠나 있는 동안 길림에서 또다시 조선인배척사건이 일어나 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다. 그는 동남성(東南省) 주석인 장학량과 길림 성장인 장작상(張作相) 등 요인들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교포들은 안정을 되찾았으나 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액목현(額穆縣)의 한 교포집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는 길림의 동양병원에 입원하였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1931년 2월 19일 가족도 없는 외로운 병상에서 순직하였다.

그의 유해는 동포들의 손에 의해 길림성 북산(北山) 동쪽 기슭에 묻혔다가 1996년 9월 11일 국내로 봉환되어 그 다음날인 12일 국립묘지 임정요인 묘역에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을 수여하였다. 유족으로는 아들 원일(元一, 전 국방부 장관)과 원태(元泰, 의사, 재미)와 딸 진실(眞實, 애국부인회 사건 연루자, 재미), 성실(誠實, 신국원의 아내), 인실(仁實, 전 YWCA 이사장) 등이 있다.

- ❶ 저서 : 《손정도 목사 목회수첩》(미간행).
- ❷ 논문 : “조선의 변천을 논함”, 〈신학세계〉, 1916(제1권 1호) ; “한국기독교 대표자들이 중국기독교에 고하는 글”, 〈신학세계〉, 1919. 4.
- ❸ 참고문헌 : 배형식, 《고 해석 손정도 목사 소전》, 기독교건국전도사무소, 1949 ; 김창수 · 김승일, 《해석 손정도의 생애와 사상 연구》, 도서출판 벅서스, 1999.



송정근

宋貞根

1895. 1. 12~1950 ?

목사, 수난자

호는 해심(海心)

송정근 목사는 황해도 서흥군 도면 도리 조용한 시골에서 송경호(宋敬浩)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학자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엄격한 유교적 교훈을 받고 자랐으며 7세 때부터 한학을 수학하였다.

동리에서 10리 떨어진 양몽학교(養夢學校) 고등과를 졸업하고 1913년 평양의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이 무렵 기독교인이 되었다. 숭실에서 배우는 동안 특히 베어드 교장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아 복음전도자로 평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1917년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제13회) 1920년 첫 전도사업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처음엔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1921년 1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이후 감리교회로 옮겨 1923년 미감리회 조선매년회에서 전도사 직첩을 받고 1924년 서울의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에 편입, 1927년 졸업하였다.

전도사로 개성지방 토산(兔山)구역에서 시무하였고 1927년 신학교 졸업(제14회)과 함께 미감리회 조선매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후 양양(襄陽, 1926~1929), 고저(庫底, 1929~1932), 고성(高城, 1932~1935), 비석리(碑石里, 1935~1937), 강서읍(江西邑, 1937~1943)교회에서 시무하였다.

그는 목회 일선에서도 불의와 부정 앞에서는 당당히 맞섰는데, 양양교회 재직 시에는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반박하다가 고난을 겪었고, 고저교회에서는 부정결혼이 있어 이를 책망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성교회 재직 시에는 소위 무교회주의자인 최태용 일파의 난동으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이러한 정신은 일제 말 친일 교권주의 자들과도 맞서는 정신적 밑거름이 되었다.

송 목사는 특히 강서읍교회에서 시무하는 7년 동안 강서지방 감리사를 역임하면서 강서지방 교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으며 도산 안창호와 함께 2대

강서 인물에 꼽힐 정도로 주민들에게 추앙받았다. 1930년 9월에 모인 남감리회 매년회에서는 원산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 이사로 피선되었고 원산 성경학원 강사로 초빙되어 교단에도 서야 했다. 1935년부터는 예수교서회 이사로서 출판사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일제 말기 평양 기림리(箕林里)교회로 옮겨 시무하였으나 일제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황해도 산골에 묻혀 은거생활을 하던 중 8·15 해방을 맞았다.

해방 후 그는 배덕영(裵德榮) 목사의 주선으로 이북 제1의 감리교회인 평양 남산현(南山峴)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성실한 목회생활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감이 그를 북한 감리교회의 지도자로 부상시킨 것이다. 그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서부연회를 재건하여 날로 심해 가는 공산당 세력에 대항할 힘을 키우려는 의도로 신석구, 배덕영, 이진구, 이피득, 조운승 등과 함께 남산현교회에서 서부연회를 재조직하고 그 회장(감리사 겸임)에 선출되었다(평양 중앙교회에서 소집된 해방 후 제1회 서부연회는 평양 남산현교회의 송정근 목사를 연회장으로, 원산중앙교회의 이진구 목사를 부회장으로, 평양 박구리교회의 이피득 목사를 서기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1941년 10월 정춘수 감독에 의해 연회가 해산당한 지 정확히 5년 만에 서부연회가 재건된 것이다. 서부연회는 1949년 7월까지 네 차례 소집되고 폐지되었으며, 그 후로는 초교파적인 조선기독교도연맹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송정근 목사는 불타 없어진 남산현교회당을 4년 만에 옛 모습대로 복원시키고 서부연회장으로 북한지역 감리교회를 관장하며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도 전개해 나갔다. 1946년 3월 1일 해방 후 처음 맞는 3·1절 기념행사는 공산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교파연합으로 장대현교회에서 모이는 데 전력을 다했고, 주일선거에는 직접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했으며, 한편으로는 장로교 측 이북5도 연합노회 지도자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공산당에 대항할 기독교 민주진영 세력을 확보하는 데 헌신하였다. 그 노력은 결국 1947년 5월 미소공동회담을 계기로 ‘기독교민주당’을 결성하는 것으로 총집결되기에 이른다.

감·장·양 교파 교계지도자들이 망라된 이 정당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던 그는 부당수로 당선되어(당수는 장로교의 김화식(金化湜) 목사) 탁월한 지도력과 인격으로 수많은 난제를 풀어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진영의 움직임을 공산당이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1947년 6월 15일경부터 북한 정권은 기독교자유당의 창당발기인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당수인 김화식 목사를 비롯해 장로교 연합노회장 김진수 목사, 감리교 서부연회장 송정근 목사, 서부연회 서기 이피득 목사와 김길수, 김현석, 이학봉, 허천기, 기형순, 강문구, 조연창, 윤창덕 등을 반동이란 명분으로 체포하였다. 곧 이들에게 지독한 고문이 가해졌고 특히 기독교민주당 조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송정근 목사는 비인도적인 고문을 받아 빈사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감리교와 장로교의 최고지도자들이 망라되어 추진된 기독교자유당 결성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그 해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서부연회는 송정근 연회장과 서기(이피득)가 구속된 관계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연회 간부들은 송정근 목사를 구출하는 방안으로 대신 인질로 구속될 방법을 구상하여 그 인질로 민족 대표 33인 중 1인이었던 신석구(申錫九) 목사와 현병찬(玄炳讚) 목사가 자원하여 결국 이들이 인질이 되어 송정근 목사는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남산현교회와 성화신학교를 위해 헌신하였다. 성화신학교 부교장이었던 그는 “드문 인격자이면서 명설교가였고 유명한 성경연구가”(홍현설 목사)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신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기독교도연맹 측이 장로교 평양신학교를 수중에 넣을 무렵, 북조선인 민위원회 교육부는 당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양신학교와 감리교의 성화신학교를 통합시키는 계획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교 명칭은 평양기독교신학교로 하고, 교장은 장로교 측의 이성휘 목사, 교감은 감리교 측의 송정근 목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 수는 두 신학교 재학생 1,200명 가운데서 선발된 120명으로 축소하며, 1950년 3월부터 통합된 신학교 체제로 개교한다는 것이었다.

통합된 기독교신학교는 기독교도연맹의 직접적인 주관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50년 초에 이르러서 기독교도연맹은 감리교와 장로교 양 교단을 모든 영역에서 손아귀에 넣는 데 성공한 셈이었다.

이때와 시기를 같이하여 공산당은 송정근 목사를 그냥 두지 않았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6월 24일 저녁, 공산당은 송정근 목사의 집을 전격 기습하여 그를 연행해 갔다. 연행되는 순간 잠깐 동안 기도를 한 뒤 가족들에게 “나는 이미 순교를 각오한 몸이니 아무 염려 말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그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950년 10월 10일 후퇴하던 공산군이 그를 살해하고 도주하였다는 말이 전해질 따름이다. 유족들은 모두 월남하였는데 부인 안정신(安貞信)과의 사이에 3남 3녀를 두고 있다. 장남 창화(의학박사), 2남 계화(상업), 3남 태화(군목), 장녀 세화(김부진 장로 아내), 2녀 인화(이시준 목사 아내), 3녀 영화.

❖ 참고문헌 : 《殉教者 宋貞根牧師傳》, 1976.



양주삼

梁柱三,
1879. 1. 25~1950 ?
목사, 초대 총리사
호는 백사당(白沙堂)

평남 용강군 산남면 홍문리에서 가난한 선비 양정섭의 장남으로 출생. 유학자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특히 한학자인 조부에게서 훈도와 감화를 받았고 이병준에게 초등학교를 배웠다.

그러나 부친의 축첩과 이에 따른 가정불화, 지방관리들의 탐학에 따른 사회불안 등으로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된다.

일찍부터 유·불·선 3도에 취미를 가지고 연구하였던 그가 기독교를 알게

된 것은 15, 6세 즈음 우연히 한문으로 된 <만국공보>란 잡지와 <덕혜입문>이란 상해 주재 선교사들이 발행한 전도서들을 접하면서부터다. 서적을 통해 기독교를 알게 된 그는 이듬해(1899) 교회를 찾아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1899년 겨울 집안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상경하여 인공양잠전습소에 입학하여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학문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이어 헐버트(H.B. Hulbert)와 콜리어(C.T. Collyer) 선교사의 소개장을 받아들고 인천을 떠나 중국 상해에 도착, 1901년 5월 남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서서원에 입학하여 1902년 10월 원장으로 있던 파커(R.A. Parker)에게 세례를 받아 정식 남감리회 교인이 되었다.

1905년 중서서원을 졸업한 뒤 유학 길에 올라 영국을 거쳐 미국에 도착하여 뉴욕지방에 머물다가 이듬해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였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하와이 개발회사에 노무자로 이민 왔던 한국인들이 대거 미국 본토로 올라와 직업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을 때여서 젊은 양주삼이 동포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떼 같아 먼저 저 불쌍한 동포들을 정신적으로 지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이 목적하고 온 학업은 후일로 미루고 한인교회부터 설립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곳에서 리드(C.F. Reid) 선교사를 만나 한인교회의 전도사 일을 맡아보면서, 월간지 <대도>(大道)를 발행하였다. 1909년 7월 양주삼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던 중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써 평생의 사업을 삼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공부를 결심하였으니 이것이 그 평생의 전기가 되었다. 1910년 1월 밴더빌트대학 신학부에 입학하여 1913년 6월에 졸업했고 이어 예일대학 신학부에 진학, 이듬해 6월에 졸업하였다. 1912년 9월 12일에는 남감리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받았다.

1915년 1월 귀국하여 즉시 협성신학교 교수로 신학을 가르치는 한편 교장인 하디(R.A. Hardie)와 함께 신학잡지 <신학세계>(神學世界)를 창간하였다. 1915년 10월 3일 김홍순, 정춘수와 함께 남감리회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장로목사 안

수를 받았고, 1916년 한영서원(후의 송도중학교) 부원장으로 2년간 재직하였으며 1918년 11월 남감리회 선교백년기념사업회 총무로 선출되어 시베리아 선교사업을 시작하는 등 남감리회 전도사업을 총괄하였다. 그 후 시베리아 선교사업 관리자(1923), 철원지방 장로사(1924), 경성지방 장로사(1929), 남감리회 조선연회장(1930)을 역임하였다. 192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국제선교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귀국 길에 덴마크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農民의樂園인 丁扶》을 편찬하는 등 한국 교회 농촌사업에 공헌하였다.

뛰어난 교회 조직가, 행정가인 양주삼 목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크게 역할하였다. 1915년 귀국하여 신학교 일을 맡으면서 자교교회 담임목사직도 1년간 겸임하였고, 1919년부터 1920년까지는 종교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였다. 충실한 설교와 헌신적인 뜨거운 봉사로 저다인, 왓슨, 윤치호, 홍병선 같은 이가 그에게서 감화 받고 은혜 받았다. 1918년에는 미국 남감리회가 외국 선교를 시작한 지 100년을 맞아 선교백년기념사업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때 양주삼 목사가 총무로 선임되었다. 그는 1923년까지 이 운동을 총지휘하면서 “교회와 민족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불어” 넣어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각 지방마다 전도대를 조직해서 순회하며 전도하고, 전도문서를 나누어준 결과 4년 만에 남감리회의 교회 수와 교인 수가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결실을 이루었다.

“今年는 우리 教會에 恩惠가 내린 해요 感謝할 해라 하겠습니다. 今年 統計表를 볼 것 같으면 地方마다 新設教會가 만코 信者의 數와 捐補의 金額이 만히 增加되었습니다 萬福의 根源되시 하님感謝榮光을 돌납세다.” (〈南監理教會 朝鮮每年會 第六回會錄〉, 1923, 60쪽)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합동하여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창립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제1회 총회에서 초대 총리사로 선출되고 제2회 총회에서도 재선되어 8년간 뛰어난 조직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었다. 총리사 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만주선교사업에 자원하여 만주지역 교포선교에 전력을 기울였다.

일제 말기 일제의 탄압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강제송환되자 선교부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였으며 기독교교회까지 관장하였다. 그러나 1942년 왜정은 기독교교회를 적산이라 하여 양주삼 총무를 축출한 후 일본인 곤도에게 관리인 직을 맡김으로 기독교교회 사업은 사실 마비되었으며, 교회재산까지 전쟁명목으로 모두 수탈해 갔다. 1943년경부터는 자택에서 은거하면서 《양씨족보》, 《조선양씨일람》 등을 집필하면서 보냈다.

1949년 3월 신사참배, 징병 권유 연설 등을 행한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기도 했다. 1949년 10월 대한적십자사 초대 총재로 취임하여 활동하다가 1950년 8월 23일 공산군에 의해 연행된 뒤 소식이 끊겼다. 이호운 목사의 말대로 “그의 일생은 그대로 민족의 수난사였고 그의 헌신은 우리 감리회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를 빼놓고 한국 감리회사를 알기 어렵고 그의 공헌이 없었던들 우리 감리회의 발전이 적잖게 늦어졌을 것이다. 그는 우리 감리회의 형성적 존재였고 산파였으며 또 유모이기도 하였다. 그는 한국 감리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종이였으며 한국 감리회의 후란시스 에스베리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생애》, 1쪽)

- ❶ 저서 : 《양주삼 총리사 저작 전집》(전5권),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91.
- ❷ 참고문헌 : 이호운, 《그의 나라와 그의 생애》, 감리교대전신학대학 출판부, 1965



전효배

田黻培

1885. 1. 16~1950 ?

목사, 수난자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에서 유명한 유학자 전병규(田炳奎)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함께 개종한 후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상동교회에서 경영한 상동청년학원을 졸업하고, 부

친이 설립(1918)한 고향의 흥천(興天)학교 교사로 교육에 종사하다가, 3·1운동 후 목회에 뜻을 두고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여 1928년 제14회로 졸업하였으며 곧 목사 안수를 받았다.

신학교에 재학중이던 1922년부터 목회를 시작하여 삼청교회 전도사로 파송받았다. 그는 여기서 특히 교인들의 기도생활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는데, 1923년 2월 그가 인도한 삼청교회 “특별기도회” 소식이 <기독신보>에 실렸다.

“경성부 삼청동교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특별기도회를 열고 오전 5시마다 새벽기도회를 권사 박경환 씨가 인도하고 오후 7시 반부터 부흥회를 전도사 전효배 씨가 인도하였고 낮에는 교우 집을 심방하여 매일 순회하며 가족 사경회를 열었는데 모인 인원은 48인으로 97인까지 모이었고 일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애통하고 죄에서 돌아선 자가 많으며 새로 믿은 자 10인이더라.”
(“삼청동 특별기도회”, <기독신보>, 1923. 4. 11)

이 당시 그는 위 기록에 등장하는 평신도 지도자 박경환, 1922년 연회에서 삼청교회에 파송되어 본격적으로 여성선교를 추진한 여성교사 컨로우(M.L. Conrow) 등과 호흡을 맞춰 목회하였고 그 결과 삼청교회는 오랜 침체를 벗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 후 그는 2년간의 삼청교회 목회를 마치고 1924년 9월, 왕십리교회로 파송, 부임하였다. 이때 왕십리교회는 목회자 주택도 없어 유치원장 이완식 씨의

사랑채를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이었는데, 1925년경 왕십리 유지로서 왕십리교회에 출석하던 김진선 씨가 주택 마련을 위한 기금을 회사하여 목사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김진선 씨는 교회의 종이 없음도 섭섭히 여겨 교회의 종까지 달도록 주선하였다.

1928년 집사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이듬해인 1929년 9월 용두동교회로 전임하였다. 그는 부임 후 청년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청년회를 재조직하였다. 청년들끼리 모여 정기적으로 성서연구를 하게 하고, 교회 봉사와 건전한 오락을 장려했으며, 그들을 통해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용두동교회는 많이 젊어졌고 선교활동도 활발해졌으며, 청년회를 중심으로 성가대가 조직되어 주일예배를 도왔다. 한편 중단된 유치원도 다시 개원하도록 하여 이후 많은 어린이를 교육하였다. 또한 부임 후 목사관과 전도부인 주택이 없어 신축하니, 목사관은 예배당 곁에 9평 합석집을 지었고 그 곁에 전도부인 주택 8평 초가집을 지었다. 이로 인해 목회자가 교회 가까이 거주하니 교인들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고 친밀해졌다. 그는 교회행정에도 능하여 1932년 용두동교회의 교적부를 정리하고 교인들의 정확한 인적상황과 이동상황을 후세에 남겨놓으니 오늘날까지 그 교적부가 보관되어 있다. 일정한 양식으로 전국 감리교회에 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이 교적부의 제목은 “기독교조선감리회 교적부 용두동교회”며, 기록형식은 먼저 신위(호주, 처자 등의 가족관계), 씨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주소, 학습연월일, 주례목사, 세례연월일, 주례목사, 입교연월일, 주례목사, 비고의 순으로 되어 있다.

용두동교회 부임 4년 뒤인 1933년 3월, 정동제일교회에서 회집된 제3회 중부연회에서 동대문교회로 파송받았다. 1930년대 들어서 동대문지역의 인구증가, 교회에 대한 인식도 상승, 동부지역 중심 교회로서의 위상, 교인들과 임원들의 열심있는 기도과 전도 등에 힘입어 교세가 부흥하기 시작한 동대문교회는 그의 재임 시에도 꾸준히 성장해 갔다.

2년 뒤인 1935년 4월 그는 다시 용두동교회로 경동지방 감리사를 겸하여 부임

했다. 당시 용두동교회는 증축의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의 부임 후에도 그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 당시 신영희 전도사와 이다가 속장, 김도경 전도사 등 10여 명은 매주 화요일 저녁 교회에 모여 2, 3년간 계속 증축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 결과 1,000여 원에 달하는 헌금이 모아졌다. 하지만 증축에 충분치 않아 계속 헌금과 기도를 하던 중, 전 목사는 1935년 5월 광희문교회로 전임해 갔다.

성품이 강직하고 정의감이 투철했던 그는 일제 말기에 남다른 수난을 겪었다. 1942년 10월 총회를 앞두고 이 난국에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양주삼 박사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그는 류형기, 정일형, 송홍국, 구성서 등과 함께 양 박사 감독 선거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옥고를 치렀으며 목사직도 면직되었다. 한편 이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열린 총회에서는 정춘수 통리자의 후임으로 김영섭 목사가 선출되나 소동으로 휴회되었고, 2개월 반 후 총회를 재소집한 정춘수 통리자는 사전 모의에 의해 변홍규 목사를 선출하였다. 이후 변홍규 통리자는 일제에 아부하며 교회가 전쟁수행의 앞잡이가 되도록 촉구했다.

해방 후 복권된 전 목사는 1946년 재차 광희문교회에 부임하여 시무하면서 감리교 재건에 앞장섰다. 복흥파와 재건파의 대립 시에는 재건파에 가담하여 재건 동부연회장을 지냈고, 두 파의 대립이 화해되고 합동이 실현된 이후에도 동부연회장의 직책을 맡아 수행했다.

1949년 금호동교회 시무중에 6·25전쟁을 겪었는데, 그 해 8월 23일에 인민군 정치보위부원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 다른 성직자들과 함께 납북된 것으로 보이며 종래는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으로는 부인 유인배 여사와 그 사이에 장남 종철, 차남 종옥을 두었다. 차남 종옥은 부친의 뒤를 이어 감리교 목사로 총리원 교육국 총무 등 여러 기관의 책임역을 거쳐 배재중·고등학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금은 미국 버팔로에서 아름다운동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조민형

趙敏衡

1896. 9. 19~1950

장로, 교육자, 농촌계몽가

1896년 9월 19일 함경남도 북청의 농촌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제일교보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야오야마(青山)학원 신학부를 졸업하였다. 전영택이 그의 동창이

있으며 졸업 후 귀국하여 전영택과 함께 협성여자신학교에서 가르쳤다.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집회를 개최하여 전도사로서도 명성이 높았다. 중교교회에 출석하면서 엽월청년회 부회장(1923), 전도사(장로) 등으로 활동하다가 일제 말기에 공덕교회로 교적을 옮겼다.

조민형 장로는 일제하에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의 실정을 보고 민족의 살길은 농촌의 계발에 있음을 절감하고 돌연 학교를 사직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농촌을 시찰한 후 1924년경 농업지역인 김포에 정착하여 실제로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그는 김포농장을 건설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한편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농촌에 보급하였고 농업 협동조합을 구상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추진하였다. 1927년 경기도 김포군 김포내면 걸포리에 걸포리 산업저축계를 조직하고 공동경작을 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이 토지를 채종답(採種畓)으로 이용하여 ‘생산증가’와 ‘기술숙달’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또 생산품의 공동판매와 소비품 공동구입 등의 활동도 하였다. 이 공동경작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1928년 김포 일대의 8곳에서 공동경작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농촌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진흥운동은 먼저 정신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농촌운동 지침서인 《조선농촌구제책》도 저술하여 농촌운동의 선구자로 역할하였다. 이 책이 발간되자 농촌뿐 아니라 사회 각층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고 1930년대 한국 교회의 농촌운동의 지침서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해방 후 좀 더 본격적인 농촌 계발을 위해서는 농촌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해

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는 황해도 배천군수로 취임할 수 있었고, 미군정 때는 김포군수로 봉사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감리교가 일제하에 저지른 반민족적·반신앙적 행위의 청산문제를 놓고 북흥파와 재건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였을 때 조민형 장로는 장세환 장로와 함께 북흥파의 수습대책위원회 책임을 맡았고, 1949년에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지상명령에 복종하여 감리교를 하나로 합하는 과정을 주도하는 통일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의 뜻을 펴보기도 전에 1950년 6·25를 만났고 이로 인해 그는 수난을 당했다. 그가 출석하던 공덕교회도 큰 피해를 당하였다. 공덕교회의 수난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인민군 정치보위부가 공덕교회에 거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공덕교회는 예배당과 주택뿐 아니라 교회 인근에 이왕직 능관리인이 지은 대저택, 또 예배당 바로 뒤에 20여 명이 피신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어 인민군이 거주하기에 좋은 상황이었다. 인민군 정치보위부는 대저택을 마포지방 본거지로, 공덕교회 예배당은 취조하는 건물로, 방공호는 감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공덕교회는 예배뿐 아니라 모든 종교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예배당 남쪽 벽이 포탄을 맞아 창문과 벽이 절반가량 무너지는 피해를 당하였다. 수난은 이 포탄을 맞아 창문과 벽이 절반가량 무너지는 피해를 당하였다. 수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로들과 청년들도 큰 고통을 당하였다. 당시 서울여자 상업학교에 재학하던 이선희(나중에 대전보육대학 학장으로 활동)는 7월 초쯤 치안대에 잡혀가서 청년회 회지인 〈빛〉의 발행인과 회지들을 내놓으라는 취조를 당하였다. ‘태극당’을 조직하여 반공 게릴라로 활약한 청년회 회원들은 더러는 인민군에 붙들려 순국하기도 했고, 더러는 행방불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피해는 권명주 장로, 김익용 장로, 조민형 장로가 납치된 것이다. 이들 중 조민형 장로는 한국전쟁 발발 후 숨어 지내다가 8월에 붙잡혀 납치된 뒤로 소식이 끊겼다. 유족으로는 부인인 박분선 권사와 2남 4녀가 있었다. 현재 차남 고 조성배 장로(부인 박명덕 권사) 가족이 공덕교회에서 신앙의 맥을 잇고 있다.

공덕교회에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때 납치된 세 분의 장로를 기념하는 ‘6·25 순교 추모비’를 2002년 세웠다. 추모비에는 “6·25 순교 추모비, 권명주 장로, 김익용 장로, 조민형 장로, 우리 민족 최대 비극인 6·25전쟁 때 위 세 분이 남북 순교하셨다. 이분들의 고귀한 신앙을 길이 계승하고자 우리는 100주년 기념주일에 이 비를 세운다. 2002년 10월 6일(공덕감리교회)”라는 내용을 새겨 넣었다.

❶ 저서 : 《조선농촌 구제책》, 신학세계사, 1929.

❷ 참고문헌 : 조이제, 《공덕교회 100년사》, 공덕감리교회 역사편찬위원회, 2004.



한사연

韓士淵
1879. 7. 18~1950. 10. 3
목사

한사연은 평안남도 용강군 용두면 운풍리에서 출생했다.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1897~1905년 한방의학 및 음양술을 공부하였다. 1907년 세례를 받았고, 1909년부터 매서인이 되어 전도하기 시작했다. 1911

년 강원도 회양구역장, 1914년 금성구역장이 되었다. 1917년 남감리회 조선연회에서 정식 전도사 직첩을 받았다. 1918년 장단읍구역, 1920년 창도구역, 1921년 삭녕구역장으로 시무하고 1922년 남감리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았다. 1924년 평강구역장으로 전임하였다. 1926년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은해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1929년 금성구역장으로 재차 부임하여 시무하고 1942년 1월부터 금화·창도·금성 3교회의 주관자로 시무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1946년에는 금화읍구역으로 이전하여 시무하였다.

깊신을 신고 성경과 찬송가를 등에 지고 전도활동에 헌신한 한사연 목사는 해방 후에 38선이 가까운 강원도 금성에 거주하여 월남하기에 용이하였다. 그

러나 “북에 있는 양들을 두고 어찌 나만 남으로 가서 편히 살겠느냐?” 하고 남아
서 66세의 고령으로 금성구역을 담임하고 또는 철원지방 감리사로 활동하였다.
또 원산과 평양을 청년들과 같이 왕래하면서 공산당과 투쟁할 각오로 교회를 위
해 충성을 다하면서, 공산당을 ‘모두 나눠먹기 패’로 부르며 그들을 거부했다.
1947년경 그가 담임하고 있던 금화읍교회가 공산당에 의해 징발되자 대신 성결
교회 예배당을 이용해 예배드렸다.

1950년 3월경 철원 장흥리교회에서 청년들이 주동이 된 반공비밀결사사건
이 일어나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체포될 때 그도 공산당에 체포되어 끌려갔다.
한국전쟁 발발 후인 7월 손자 한영순이 원산으로 압송되어 가는 한사연 목사를
만났는데, 이때 한사연 목사는 손자에게 “영순아! 네가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
야 한다”라고 외쳤다 한다. 전쟁 후 그가 시무한 금성지역 사람들의 연말모임에
서 신시옥(작고)은 “한사연 목사님은 원산 앞바다에서 4명씩 철사줄에 묶여 수
장됐다”고 증언하고 그 날짜는 10월 3일로 기억했다. 그의 아들 한병옥도 아버
지의 권유로 적지에 남아 의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전쟁 중 총살당했다.

제2회 순교자기념주일 예배자료집

발행인 : 신경하

편집인 : 행정기획실 역사전산부

발행일 : 2008년 6월 12일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6층

Tel. 02)399-4306, 4298

www.kmc.or.kr

인 쇄 : 밀알기획 ☎ 02)335-6579